

# 하느님의 왕국



## [ 4 ]

구약성서를 이룬 율법과 예언자의 글은 하느님의 말씀과 계시가 담겨 있는 글입니다. 성자께서 탄생하시기 천 이백여 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그 글들 속에 숨겨져 있는 내막은 ㄱ 메시아에 대하여 증명하시는 ㄴ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실 구세주(救世主)이신 메시아를 예언하였던 예언자들 중 마지막 예언자의 ㄷ 소리입니다.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예언자 중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시기상으로 가장 가까워서 예언하여 ㄹ, 오시는 ㅂ 자의 길을 바로 앞에서 예비하였던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과거사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세상에서는 학대를 받았는데 ㄱ 그 맥락대로, 서민 중에는 요한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자로 여겼던 자들이 많았으나 당시 민중의 지배계층이었던 전문직 종교인들은 요한을 인정치 아니하고 ㄴ 비난하였습니다.

요한은 세속을 철저히 등지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石淸)을 양식 삼아 살았던 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백성을 인도하던 종교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그 나라에 임할 하느님의 임박한 진노를 예언하였건만 그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요한을 헐난하였습니다.

요한이 어느 한 분을 목격하자 그를 가리키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ㄱ. 룰16:25~26 골1:26~27, 2:2 ㄴ. 요5:39, 46 ㄷ. 사40:3 요1:23 ㄹ. 마11:9, 21: 26 ㅁ. 마11:13 눅16:16 ㅂ. 요1:15,27 ㅅ. 사40:3 말3:1 요1:6~8,19~23 ㅇ. 대하24:20~21 렘7:51~52 ㅈ. 마21:32 ㅊ. 마11:18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ㄱ 말하며, 그가 곧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ㄴ 요한을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시키신 그가(하느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ㄷ 그대로 요한은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ㄹ 하면서, 전례에 없는 특이한 의례를 백성에게 매번 베풀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교파에 따라 세례, 영세 또는 침례 등으로 불리는 의례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의 한글판 성경에 이 의례가 세례로 번역되어 부득불 여기에 그대로 옮겨졌으나, 기실은 (물)에 담그다 라는 뜻의 희랍어이건만 그 본의와는 달리 씻을 세(洗)자로 말을 바꾸어 한글판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에 죄를 씻는 결례가 ㅂ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 모세의 율례(律例) 외에 또 다른 속죄의 율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속죄제(贖罪祭)나 속건제(贖愆祭) 자체들이 죄와 과실을 씻는 유대인의 예법이요, 희생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와 과실이 씻어지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가 명칭만이 아니라 그 의례마저 변형시켜 놓았으나, 기실은 원어의 뜻대로 사람이 물속에 온전히 잠기게 하는 의례이고 그의례를 행함으로써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자의 정체를 나타냈던 것이 오 ㄱ. 곧 태초에 물에서 탄생하시어 그 모습을 나타내신 창세의 빛이십니다.



물에서 탄생하신 빛 그대로, 성자께서 물 위로 당신을 나타내실 때,

ㄱ.요1:30 ㄴ.요1:34 ㄷ.요1:31,33 ㄹ.요1:33 ㅁ.요1:31 ㅂ.요11:55 행21:26 ㅅ.레17:11 히9:7,22 계7:14 ㅇ.요1:31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 시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어서 ㄱ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의 증언대로 요한보다 나중에 세상에 오셨는데도 먼저 계시는 ㄴ 하느님의 독생자입니다. 먼저 계시도 까마득히 먼저 계시는 임이시오. 그 빛께서 오심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요한을 보내셨고 ㄷ 그러한 의례를 베풀게 시키셨습니다 ㄹ.

요한의 증언대로 그 생명의 빛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고 ㅁ 이제도 민족의 경계를 넘어 ㅂ 만인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빛 가운데 거하도록 ㅅ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창세 전에 있었던 빛의 탄생을 형용한 것이 요한의 의례이나 그 출생의 의례를 요한은 그에게 나아오는 각인에게 베풀었으니, 너도나도 빛으로 태어나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지자 모세가 물에서 건져졌기 그 이름이 되었고 ㅇ, 성자를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물에 들어가 침례(沈禮)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라고 ㄱ 증언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靴)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ㄷ 하였습니다.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일천이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하느님께 『돌아오라』 라고 ㅋ 하셨던 말씀인바, 곧 회개입니다.

ㄱ.마3:16~17 ㄴ.요1:30 ㄷ.요1:6 ㄹ.요1:33, 눅20:4~8 ㅁ.요1:9, 8:12 ㅂ.사42:6, 49:6 ㅅ.요일서1:8 ㅇ.출1:10 \* 침례가 원어의 의미여서 침례로 표기 하였다. ㅈ.마3:2 ㅊ.마3:11 ㅋ.사31:6, 44:22, 55:7, 렘3:12, 14, 22 울2:12 슝1:3, 4 말3:7 눅5:32, 15:7, 24:47

회개는 단지 죄를 씻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죄가 본래 따로 있어서 더러워진 내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신을 뒤우쳐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ㄱ.

사람은 본래가 에덴에서 하느님과 함께하였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남을 희생시켜 오던 자신을 돌이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고 또 어찌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ㄴ 하셨습니다.

자신을 물 속에다 담그는 예법입니다.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미워하여 묻어 버림이요. 나 자신이 죽어 장사 지낸다는 ㄷ 의미입니다. 물속에서 솟아나니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는 새 생명이라 태동하는 의식이니, 곧 사망을 통과하는 생명의 의례입니다.

이 같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베푸는 요한의 침례는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중생(重生)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죽어서, 다시는 내가 있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主)가 계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자께서 가라사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ㅁ 하시어서 교회에서 하느님께 예배하는 예식 중에서 중차대한 의례이건만 ㅂ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의식 자체가 바로 회개라고는 할 수 없으나 회개는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절대적 과정입니다. 도저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단계가 아니어서 의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참회하는 우리의 죄를 아주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리신 임이십니다.

ㄱ.눅3:8 ㄴ.눅15:7 ㄷ.눅12:50 롬6:3~4 고전 15:29 골2:12, 3:3 ㄹ.롬6:5 ㅁ.눅5:32 ㅂ.마28:19, 막16:16

단절되어 있던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맺어주는 화목제물(和睦祭物)이 ㄱ 있습니다. 곧 살육되어 피 흘리신 하느님의 어린양 ㄴ, 예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시어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떠맡겨 죄의 값을 대신 갚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어린양께서 죄인을 위하여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죽음에서 참된 삶을 얻는, 그렇도록 중대한 죽음과 삶의 예식이 ㄷ 침례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쪽의 이 같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이 중대한 구속(救贖)의 의례를, 은혜를 입는 쪽이 거창한 절차도 아닌 그 담그는 예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느님께 대한 예일까.

예수께서 친히 명하신 예식입니다 ㄹ. 예수의 교회면 예수께서 명하신 예절 말고 또 어떤 예절로 하느님께 예배할 수 있으리오.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기뻐하며 ㅁ 떠받들어 행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의례를 위해 초기의 교회같이 단단한 암반을 골라 물을 담을 넓은 웅덩이를 쪼아서 파는 정성까지 들이지는 못할망정, 지금의 기독교는 단지 손가락으로 종지에 담긴 물을 찍어서 뿌리고서는 성서대로 물속에 잠기는 예라고 부를 수 없어서 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살인이나 간통을 한 자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 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였고 ㅂ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네 백 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네 백 체 중 하나

ㄱ.요1서2:1~2, 4:10 ㄴ.출12:3~11 사53:7 요1:29, 36, 계5:6 ㄷ.막10: 38~39(마20:22~23) 눅12:50 롬6:4 골2:12, 3:3 ㄹ.마28:19, 막16:16 ㅁ.눅15:7 ㅂ.마5:2122~26

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ㄱ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 태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죄인이어서 누구나 하느님께 허물을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하느님을 대하는 예입니다.

의인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요 예수를 믿어서 모인 교회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ㄴ 예수이십니다.

많은 기독교의 신자들이 이미 중생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참말로 그들이 그 중생 후로는 마음으로나 혀로나 또는 눈으로나 손으로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참)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ㄷ 성자께서 친히 사랑하셨던 제자가 증언하였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자는 저 자신을 속이는 자이고 하느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도 아니하다고 한 증언이니 실상은 하느님을 믿는 자도 아니라는 증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 자신을 더럽고 우매하게 여겨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아니한 나 자신이 그대로 있기에 잘못을 범합니다. 진정 주의 대속을 믿는 자는 어린양의 피로 자신의 허물을 끊임없이 씻습니다.

믿음은 예수라고 하는 분께서 계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 신조로써 지킨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있는 도구입니다.

ㄱ.마5:28~30 ㄴ.계2:5, 16, 21, 3:3, 19 ㄷ.요1서1:8~10 ㄹ.마20:28 막10:45 ㅁ.마7:21 요15:2~8, 16

한자로 사람 인(人) 변에 말씀 언(言)이 하나가 되어 믿을 신(信)이듯  
말씀이 우리의 속이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그 빛을 비추니 자연히 그 말씀과 상반되는 죄악들이 가까운 내 몸부터 드러납니다.

성자께서 친히 거느리시었던 제자는 아니나, 성자께서 당신의 승천 후에 엄히 부르셔서 사역자가 된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라고 탄식하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여서 항상 회개하였습니다.

돌이켰으면 가야 하듯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가는 행보의 길이어서 허물을 실족(失足)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뜻이 살아있어서는 그것으로 하느님과 원수가 됩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뉘우치고 뉘우치며 다짐하고 다짐해서 나의 뜻이라고는 한 터럭도 남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이 계셔서 그대로 행동하면 그 하느님의 그 아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아무도 의로운 자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여서 더는 자의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느님의 권속입니다. 마음속에는 천자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판단하는 새 씨가 심겨져 있어서 가라사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몸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람 속에 잉태된 하느님의 씨이지, 인간 자신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은 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씨를 바울은 새 사람, 속 사람, 또는 우리의 속 등으로 표현하여서 증언하였듯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육신을 가진 이상, 겉 사람의 정욕에 이끌려 실족하는 것입니다.

ㄱ.요:5:38, 8:37, 15:7, 요1서2:14, 5:10 ㄴ.롬7:19 ㄷ.고전15:31 ㄹ.벧전3:21 요1서3:3 계22:14 ㅁ.마5:29, 18:6 요11:10 ㅂ.마5:48 ㅅ.엡2:15, 3:16 ㅇ.요15:2 ㅈ.요13:10, 15:2, 17:17, 엡5:26 ㅊ.마16:24, 26:34~35 막8:34 눅9:23 ㅋ.엡2:15 ㅌ.롬7:22 엡3:16 ㅍ.고후4:16 ㅎ.롬7:22~23 고후4:16 갈5:17

침례자 요한에게서 난 침례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세례가 있습니다. 실족하여 더러워진 발을 씻는 예입니다. 기독교는 세례를 사장하고서 단 한 번 받는 침례를 세례라는 명칭으로 대체시켜 놓았기, 교인들이 죄 사함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설교를 듣고 교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죄 사함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것은 오직 열매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하느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야 천부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불효자로 통감하는 자식이어서야 지금보다 효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자는 자신을 전보다 더 못된 자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죄도 아니던 것이, 말씀을 한 층 더 깨닫고 보니 예수께서 온전케 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온몸을 물에 잠기게 하여서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의식이 침례이나,

ㄱ. 눅3:3 행13:24    ㄴ. 요13:14~15    ㄷ. 창4:7 마3:10, 7:17~21, 21:43    ㄹ. 요 15:1~4    ㅁ. 요13:10, 15:2    ㅂ. 마3:8, 7:20, 21:43 롬7:4 갈5:22 약5:7    ㅅ. 마3:10, 7:19 눅13:6~9    ㅇ. 마5:17, 21~48    ㅈ. 요13:34~35, 14:15, 15:12 요일2:3

그와 같이 이미 몸을 담가 목욕한 ㄱ 형제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세례를 그리스도께서 명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거둬주어 주시는 속죄가 없어서는 그는 실상 그의 주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는 황송하여서 이를 만류하였었는데, 이에 가라사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이라 아니 하시고 『씻기지 아니하면』 이라고 수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 백성이 신명께라면 정화수를 떠다 놓고 그저 빌었듯이, 하느님께라면 그저 비는 것이요. 힌두교인들이 강물에 몸을 연방 담그며 예를 하듯 죽고 또 죽어서 자신이라고 하는 주체는 한 터럭도 남지 아니하여 비로소 온전한 몸입니다. 하느님께 돌이켜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요. 서로 자기 쪽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상에서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는 길입니다.

발을 씻기는 세례는 섬기는 예입니다. 내 자신이 종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주이시요. 그리스도와 믿는 자와의 상관은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체이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가 아니라 나의 객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가라사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부른다고 예수께서 그의 주가 아

ㄱ. 요13:10    ㄴ. 마6:12, 18:21~22    ㄷ. 요13:38(21:15~17)    ㄹ. 요13:8    ㅁ. 마6:12    ㅂ. 요13:13    ㅅ. 요13:16    ㅇ. 시 78:36~37 사29:13 렘12:2, 26:3, 13 겔33:31 마7:21~23 요1서3:18 벰전3:21

니요. 오직 행실로 따르는 종이 되어야 비로소 주이십니다. 주께서 먼저 인생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 또한 언제나 종으로서, 주의 계명을 준행하지 못했던 허물을 용서 빌어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천주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회교도들이 바닥에 포복하여 엎드리듯, 오로지 복종하는 종으로서라야 그는 자기의 주와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비는 자가 의자에 앉아 가볍게 입술만을 움직여서 섬기는 것이 예가 아니어서 의례를 거치는 것이고 의례를 통하여 회개의 합당한 행실에서 나 떠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씻는 것을 닦는다고도 합니다. 도는 닦는 것입니다.

닦고 또 닦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되기까지 닦습니다.

주의 종인 것 같이 그 주의 말씀대로 형제들이 모이는 때 너나없이 형제가 형제의 발을, 자매가 자매의 발을 닦아 주는 예식을 통하여서 서로 상대방의 종으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느님을 찾기 전에 먼저 그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비는 자가 되고 형제의 잘못이 있으면 누설하지 않고 남 모르게 권고하여서 돌이키도록 도우며 나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대로 형제의 잘못을 일곱 번의 이른 번이라도 용서하여서 형제가 서로 상대를 떠받들어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체질이 되도록 익히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발을 씻기지 아니하시면 주와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신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라고 하였는데 이에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ㄱ.마6:12 눅11:4, 18:13 요1서1:9, ㄴ.마3:8 눅3:8 행26:20 ㄷ.마5:48 눅6:40, 11:36 ㄹ.마5:23 ㅁ.마18:15 ㅂ.마6:14~15, 18:22, 35 눅6:37, 17:4 골3:13 엡4:32 ㅅ.마20:26, 23:11막9:35, 10:43 눅22:26 ㅇ.요13:9

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였어도 그 제자 중 하나는 부인하여야 할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인생을 깨끗게 하시어서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건만 그 중 하나만은 반대로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느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건만 오염된 인생을 주의 신분으로서 쓸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인생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가시에 찢리고, 못에 찢리고, 창에 찢려서 당신의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이쪽 몸을 굽혀서 악취 나는 상대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일이 어찌 높으신 자의 일이요, 그리스도인이 이같이 종의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께서 먼저 인생을 섬기는 종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음 이요.

성자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또한 하느님의 어린양과 같은 종류가 되어 서로서로 떠받드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주이시고 선생이신 예수께서 물을 떠다가 허리를 굽혀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본을 그대로 따라 서로 발을 씻기는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훈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다 형제요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실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너나 나나 누구든지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입니다.

ㄱ.요13:10~11 ㄴ.요12:6 ㄷ.요13:27 ㄹ.마20:28 막10:45 ㅁ.마26:28 요1:29베전1:2, 19, 3:18 히9:22 요1서2:2 ㅂ.마2:6, 23:10 요10:16, 13:13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서로 자기 쪽을 낮추어, 말석에 앉는 종이 되어서 형제에게 우대를 받지 않고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이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은 그 예식이 종교적 지도층의 권위주의와 상반하여서 그 예식을 고의로 사장한 것입니다.

물로써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은 예수께서 친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서는 그 누구도 형제 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서 서로 발을 씻기는 행사를 사장하였습니다.

비단 예식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형제 위에 아버지(父)라는 칭호도, 지도자라는 그 지도 목(牧)의 칭호도, 선생이라는 스승 사(師)의 칭호도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지도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분의 호칭에 대한 금기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호칭도 부족해서 그 위에 당 회장이니 대주교니 하며 지도계급 위의 계급까지 덧붙여서 칭함을 받으나 이런 행위는 성자의 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명칭입니다.

그와 같은 칭호를 가지고 사람에게 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양, 자기 앞에 고개 숙인 형제의 머리에 물을 찍어 뿌려서 베푸는 세례는 실상 성자의 교훈과 반대가 되는 예식이고, 세례라고 하는 핑계로 도무지 있어서는 안될 예식이 인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인 중 어떤 이들은 이미 중생한 세례 교인으로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또 무슨 회개냐고 호통입니다.

ㄱ. 겔21:26 마20:26 마23:11~12 막10:43 눅18:14 ㄴ. 요13:14~15 ㄷ. 마23:8~10

성자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는데 ㄱ, 참말로 형제에게 화 한번을 내지 않고 그 어떤 이성의 자태를 보아도 마음 속에 욕구 한 번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깨끗해서 천국에 갈 자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자까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실상 하느님과 그 아들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필시 사람의 교훈을 믿는 것이요, 천자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라면 그 말씀 때문에 제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救贖)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를 짓고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인생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거듭 남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출됨을 의미합니다.

중생한 새 생명이 어찌 옛 생명같이 흠이 있을 수 있으리오. 구원은 사람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 행위가 종교적 행사의 행위가 아니라, 실생활의 선행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입만 가지고 말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인위로 그린 예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같이 생긴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서 중에라도 경중은 있으나, 비록 예수께서 승천 후에 부르셔서

ㄱ.마5:21~30 ㄴ.요1서1:8~10 ㄷ.마7:21 약2:14~26 요3:19~21 ㄹ.마7:22~23 ㅁ.마25:35~46 ㅂ.약2:14 ㅅ.마7:24~26 ㄷ.눅6:46~49 약1:22 ㅇ.마7:21

사도가 된 바울이 아무개에게 쓴 서신이라도 그곳에서 쪼가리 하나를 떼어내 제목을 붙여서 그것이 전체인양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식으로 정의하면 어떤 억측인들 만들지 못할 것이 없어서 바울의 증언조차도 곡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대교의 종교적인 행위를 ㄱ 말한 것이지, 그것이 어찌 사랑의 선행을 말한 것이라는 말인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말한 바울은 분명히 할레라고 하는 유대교의 종교적 행위를 ㄴ 말하고 있던 것이요. 자기 민족은 그 엄중한 종교적 율례들을 지키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터에, 그러한 법도 없어서 수고도 아니하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좇는 것을 보았기, 그래서 하느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ㄷ 것입니다. 천자의 말씀을 믿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과 믿음이 별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가까이 예수를 따랐던 야고보는 바울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ㄹ 증언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말하였고 ㅁ, 무엇보다도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 이라고 ㅂ 하시어서 아브라함의 친자손이라도 행실에 따라 행실이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라고 ㅅ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에 따른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는 그 깨끗함을 받기 전보다도 실상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ㅇ.

이것은 내가 속죄를 받았으면 그로부터는 내가 있던 그 마음의 자리에 나 대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 믿음이요.

ㄱ.롬3:20, 28, 갈2:1 ㄴ.롬4:1~16 ㄷ.롬3:24 ㄹ.약2:24 ㅁ.약2:26 ㅂ.요8:39 ㅅ.요8:40~46 ㅇ.마12:45 ㄷ.눅11:24~26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말씀의 영이 아니 계시면 위선자가 되어 그 죄악이 전보다도 더욱 깊고 커지는 것이요. 예전에는 하나이던 마귀가 이제는 일곱 수가 되었으니 나의 속엔 선하신 하느님의 일곱 영이 아니라 위선을 하는 일곱 마귀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점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신 예언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종말은 위선으로 가득해서 실상은 전도를 받기 전보다 더욱 악한 세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ㄱ. 의로운 자는 오직 하느님뿐이시어서 스스로 회개하였다고 하여서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속에 그리스도의 계명이 거하여서 그에 따라 행하는 자라야 깨끗하고 의롭습니다 ㄴ.

참으로 믿는 자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어서 ㄷ 그 풋대를 향하여 항상 자기를 깨끗게 하여 갑니다 ㄹ. 정하면 정할수록 그의 속에 말씀의 비중은 더욱 커져 거룩하고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요. 마음속에 믿음이 적으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마는 것이 ㅁ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조차 없으면서 제 땅에 믿는 자로 자처하며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여긴다면 어차피 갈 천국인데 소망은 무엇이고 구원의 소망을 위한 인내는 무엇이오.

믿는 자가 갖는 구속(救贖)의 소망은 이것이니, 회개한 후로부터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져서 인내로써 지켜내는 자에게 베푸시는 성자의 침례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증언대로 물로써 베풀어지는 침례가 아니라 성자께서 성령과 물로 베푸시는 성자의 침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배태의 단계입니다.

ㄱ.시14:1~3, 53:2~3   ㄴ.요15:3   ㄷ.고전13:13   ㄹ.베전1:3   ㅁ.요1서3:3   ㅂ.고후7:1, 요1서3:3   ㅅ.마13:12, 25:29   ㅆ.막16:17~18   ㅈ.베전1:3~5   ㅊ.계14:4   ㅊ.마10:22   ㅊ.계1:9, 3:10   ㅋ.계12:17   ㅋ.요1:33   ㅌ.마3:11   ㅍ.막10:38~39   ㅎ.눅12:50   ㅎ.행1:5

믿음을 가지고 불려가는 장사와 같이, 주에게서 받은 성령을 불리고 키워서 결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소망을 이룹니다.

물로 침례를 받듯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차원의 중생입니다.

의례가 아니라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그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생은 말일이나 이루어지는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영을 혼동할 수 없습니다. 가라사대 『육(肉)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奇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성자께서 출생의 비유로써 당신의 부활을 설명하시고, 당신의 침례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을 친히 보여 주셨으니 곧 당신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임의로 오시어서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또 하시는 말씀까지 듣는 바로되, 바람 같이 오시었기 어디서 오셨으며 가실 때도 바람 같이 사라지시기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는 신령이십니다.

그렇다고 혼령이 아닙니다. 혼령이 어찌 살과 뼈의 육체를 가지셨단 말이오. 문제는 바람 같은 영이면서 육체로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던 제자마저 확인하고는 결국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고 자복하였으며, 죽임을

ㄱ.마25:14~30   ㄴ.요3:5   ㄷ.눅7:28   ㄹ.베전1:5   ㅁ.눅21:28   ㅂ.계14:3   \* 한글판 성서에 「성령으로 난 사람」 이라고 썼으나 원문엔 사람이라는 어휘가 없다. 직역 하면 [성령으로 난 재]가 된다.   ㅅ.마3:6~8   ㅆ.요16:21~22   ㅊ.눅12:50   ㅋ.눅24:36   ㅋ.요20:14,19   ㅌ.눅24:31   ㅌ.눅24:39   ㅍ.요20:25   ㅍ.요20:28

당하셨던 임을 그렇게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매 매우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奇異)히 여기고 있던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숫기까지 하신 성자이십니다.

사람의 몸이 신선으로 부활하신 새 차원의 몸이시니, 신령이시어서 바람같이 나타나시고 바람같이 사라지시 되 사람의 육신으로 나타나시어 음식을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에게서 받아 잡수시기도 하시는 초자연의 몸이십니다.



임의로 눈에 보이는 육체도 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도 되시니 도대체 이러한 존재를 무엇이라 부르리오. 세상에 그러한 존재가 있지 아니하여 명명하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두절미하고 쫓가리를 떼어내서 스스로 중생한 자라고 자처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곡해한 자입니다.

주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주의 뒤를 따르는 제자 또한 주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서 구속을 받아 부활하고 변화하는 것이요.

이 구속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마지막 때, 참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살아 있는 자는 변화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의 몸을 입는 것이니 곧 천강(天降)입니다.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천자께서 재림하시는 때,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천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어디까지나 모형의 의례이기 때문에 그 의례를 받았다고 하여도 실제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설사 재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였어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추후로 죄와는 상관이 없이 하느님의 뜻대로만 행동한다는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ㄱ. 눅24:43    ㄴ. 눅24:30    ㄷ. 요21:13    ㄹ. 요3:8    ㅁ. 눅14:27    ㅂ. 요12:26    ㅅ. 마10:25, 16:25    ㅆ. 막 10:38~40    ㅎ. 눅6:40    ㅊ. 요1서3:2  
 ㅋ. 계14:3    ㅋ. 눅21:28    ㄷ. 롬8:23    ㅊ. 계20:4~6

성자의 침례는 의례라고 하는 모형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육신의 부활을 성서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따라 죽었던 자나 살아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오시는 상제와 한 무리가 되어 이 땅에 발을 딛고 서는 것이요.

천자께서 가르쳐주신 천국은 하늘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 이 땅에 임하옵는 나라입니다. 상제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라이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지이다』 고 영원하여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요한의 증언대로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침례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체질이 소멸되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새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침례 요한만큼 죄악과 멀리하여 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던 의로운 한 제사장의 아들이요, 그 자신은 더더욱 철저해서 세속까지 등지고 살다가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목을 베인 요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이상 더할 수는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의 부친에게 천사가 왕래하여 잉태 되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 하느님 앞에 커다란 자입니다. 어찌나 큰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하신 요한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하시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여자가 육신으로 낳는 생명체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생명체의 나라입니다. 물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난 생명이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초자연의 몸입니다.

ㄱ. 계14:1    ㄴ. 마6:10    ㄷ. 사4:4    ㄹ. 살전3:13    ㅁ. 계14:5    ㅂ. 눅6:40    ㅅ. 베전5:10    ㅆ. 눅1:5~13    ㅎ. 마3:1~4    ㅊ. 눅7:33    ㅋ. 마 14:3~12    ㅋ. 눅1:11    ㄷ. 눅1:15    ㅊ. 마 11:11    ㅎ. 눅7:28    ㅊ. 요3:5    ㅊ. 요1서5:8    ㅎ. 요11:25~26, 12:25    ㄷ. 고전15:52    ㅊ. 요1서 2:25



기어다니는 벌레가 탈바꿈하여 나비가 되면 더는 길 수밖에 없는 벌레의 삶이 아니듯,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더는 인류가 아닌 차세대의 생명이어서 요한만큼이나 경건한 사람의 고결 함도 그 생명의 온전하고 무결함에 비교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 후 일세기 말엽까지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산 증인 중 더러 생존해 있을 때였고,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기약을 하시고 승천하셨기 오실 임을 박해 속에서 기다리며 신앙하던 자들에게 메시아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서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무참히 파괴되어 사라지고 예수의 산 증인들이 점차로 사라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증인들의 기록들이 신앙의 지침서로 드러나기 시작하여서, 계속되는 신앙의 박해 속에서 지금의 신약이라고 하는 성서가 형성되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의를 부인하고 하느님의 뜻을 좇으라고 박해를 받았던 신자들이었기 그 신앙 속에서 성서가 신의 대로 형성되었습니다.

서기 삼백 년 후 로마 정부의 공식적 박해가 끝나고나서는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콘스탄틴 대제의 비호 아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한 신학자가 성서 중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빼내려고 하였어도 그 계시록이 이미 정경으로 굳어져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비단 성서의 신약만이 아니라 신 구약 전체가 이같이 신의 뜻으로 자연히 형성되어서 굳어졌습니다.

시대와 장소가 천양지차로 다른 수많은 사람이 쓴 글인데도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쓰이고 모인 책들이어서 그 수많은 서책이 마치 한 사람의 글과 같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중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개신교의 예순여섯 권 외 그리스도 이전의 문서 중에서 덜 중요시되는 일곱 권의 문서를 제이 정경이라고 하듯, 경문이라고 할지라도 경문마다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이라도 예수를 몸소 따라다녔던 제자가 쓴 책이 있지만 한 다리 건너 쓰인 책도 있고, 같은 편지라도 모든 신자에게 전한 서한도 있고 특정인에게 보내는 서한도 있어서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성령의 계시나 영감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예수의 산 증인 중에서도 불과 한 단편의 서한만을 쓴 증인이 있고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한 제자는 복음서와 모든 신도에게 전한 문서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까지 망라하여 썼습니다.

그같이 구약도 다 같은 선지자들이나 어느 선지자는 불과 몇 마디의 말씀을 받았으나 또 어떤 선지자는 그 몇 십 배의 계시를 받았으니 오직 계시하시는 자의 뜻일 뿐입니다.

서로 대소의 차가 이토록 심한 것은 인위로 쓰고 편집한 책이 아니라 신위(神爲)의 문서들이기 때문이어서 그 모두가 필요하지 않은 문구가 없습니다.

선지자 중 말씀을 가장 많이 받은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인생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도가 그의 계시를 자세히 상고하고 성서의 말씀을 짝을 맞추어 보는 외에 방도가 없습니다.

같은 하느님의 종이라도 율법을 받은 모세는 그의 형제인 아론에 비하면 하느님과 같은 존재이고 아론은 그 백성에게 하느님같은 자였듯 모두 같은 성령의 영감이라도 하느님께서 종들을 보내시어 전하신 말씀과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친히 인생에 주신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말씀께서 꺾 육신이 되시어서 나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그 말씀이 그를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요,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시며 말씀하신 그 진실의 말씀으로 인생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생이 기록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꺾)을 기록한 곳 중에서도 지극히 기록한 곳이라고 하여서 성소 안의 지성소(至聖所)라고 하였는데 그 지성소는 신상을 만들어서 모신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신상 대신 꺾(櫃)가 있고 그 꺾은 하느님의 계명이 새겨진 두 돌 판을 모신 곳입니다. 말씀이 지극히 기록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사람이 조형할 수 있는 물체의 형상이 하느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몸은 없고 뜻이 있으셔서 그 뜻을 행하시는 임이 곧 하느님이시어서 그의 말씀이 새겨 있는 돌 판이 있는 곳을 지극히 기록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ㄱ. 요1:2    ㄴ. 요1:14    ㄷ. 요12:44~50    ㄹ. 요15:3    ㅁ. 요17:17~19    ㅂ. 레10:1~2 16:1~2    ㅅ. 출26:33

하느님의 말씀은 진실의 그 참입니다. 말씀이 곧, 참 이치인 것은 그 말씀의 일 점 일 획이 그대로 천지와 인류의 운명을 지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벗어나 그 뜻을 거역해서 멸망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뜻대로 순종해서 영생으로 소생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생을 미혹하여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 본래가 하느님의 생기를 받아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태어난 생명이건만, 하느님의 말씀을 요사스럽게 왜곡시켜서 그 순진한 생명을 죽이는 자의 이야기가 율법의 첫 책 가운데 삼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몰라서 묻는 의문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곳으로 끌어들이는 유도질문입니다. 의문 자체가 진실한 의문이 아니듯 묻는 말 자체가 새빨간 거짓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는 말은 하느님의 말씀 중에 어디에도 있지 않은 말입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속으로 유도하여 하느님을 의심케 한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뱀의 미혹에 여자는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보태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여서 확신조차 없는 뜻으로 변질하였습니다.



이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ㄱ.창3:1    ㄴ.창3:2~3    ㄷ.창2:16~17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ㄱ 피었습니다.

뱀의 주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미신이라는 뜻이어서 인간이 미신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 같은 주권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인간의 적으로 인식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였고 이에 하와는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에서 민족의 시조를 모신 곳을 천진전(天真殿) 이라고 불렀듯이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진실을 그대로 받아 태어났던 생명이었건만, 뱀의 유혹으로 그 실과를 먹고 나니 물정에 눈이 뒤틀렸습니다.

천진하지 않은 것을 속언에 발랑 까졌다고 말하듯이 그 천진하던 삶은 죽고 그 대신 눈이 까져서 자신을 자각하였습니다.

인생이 저 자신을 자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뵈는 것이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 자신 쪽의 자각으로 하나님의 낮을 피하였고 숨었습니다. 물정의 눈이 뜨였지만 그의 혼은 어둠에 처한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이제는 짐승과 똑같이 적나라한 육체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을 리 없건만 ㄷ 이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신이시고 자신은 육체일 뿐입니다.

영생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아버지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천진한 어린 아이는 마냥 즐겁습니다. 그의 마음엔 자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어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에도 주인에 의지하여 사는 가축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는 야생이 있는 것 같이, 사람 본래가 야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걱정이 없이 살던 생명이었습니다.

ㄱ.창3:4~5    ㄴ.창3:6    ㄷ.창3:7    ㄹ.창3:10    ㅁ.요1서4:18    ㅂ.요17:3

결국은 야생의 미혹으로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동산에서 못 짐승을 다스리던 ㄱ 순천(順天)의 세상이 거꾸로 아래의 들짐승이 인생을 교훈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역천자(逆天者)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고전의 글귀같이 멸망할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자신 쪽을 여(輿)라고 호칭하였듯이 성산이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리이면 들 야(野)는 다스림을 받는 쪽이나, 그 들짐승은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인생은 짐승과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천부(天賦)의 자리를 잃고 도리어 바깥 환경의 지배를 받아 수고하며 살다가 죽는 삶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인심(人心)이라고도 하고 인정(人情)이라고도 일컫는 인간의 마음과 정은 너나없이 이웃과 정을 나누며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북돋우며 낮 모르는 손님을 떠받드는 사랑입니다.

인생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몸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내려받아서 사람이 산 혼으로 거듭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야생의 미혹에 빠져 배은망덕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의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써 거듭났던 그 혼의 생명이 죽고 여섯째 날에 흠으로 지어진 육신에 이끌려서 사는 짐승의 삶이 되었습니다.



인심이 야수의 야심으로 변화였습니다. 야욕이니 야망이니 하는 그 야심은 근본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일어나는 욕망이어서 하느님의 사랑과는 반대로 남을 해치고 죽이는 독사의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뱀에게 『내가 너(옛 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ㄱ.창1:28, 2:19    ㄴ.요8:44    ㄷ.창3:15

뱀과 그 뱀의 후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반대편의 여자와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은 무엇인지의 해답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계시에서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생에 『먹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은 법입니다. 여기면 정녕 죽고 마는 법이나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짐승의 나라에서,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형을 선고하였던 자가 예수께 한 질문입니다 ㄱ. 서로 종류가 달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은 질문입니다.

짐승에게는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짐승에게는 그 과실을 먹고 죽을 생명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생명과 뱀이 죽지 않으리라고 말한 생명은 다른 생명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혼의 생명이어서 말씀을 범한 그 날 죽은 삶이고 뱀이 말하는 삶은 흙에서 취하여져 만들어진 육신의 생명입니다.

짐승의 세상에서 하느님은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입니다. 정신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지각만으로 살아가는 생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육신이 먹고 사는 물질의 양식이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정신(혼)의 양식이 아닙니다 ㄷ.

가라사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짐승에게는 진리니 말씀이니 도니 하는 따위는 듣는다고 하여도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진실한 소리를 책 잡아서 해치려고 참소할 뿐입니다.

ㄱ.요18:38    ㄴ.창2:17    ㄷ.마4:1~4    ㄹ.마7:6

세상에는 저 자신의 몸뚱이를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팔아 먹고사는 뱀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누구나 오로지 하느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이요 교훈이건만, 자신이 지켜야 할 그 교훈을 거꾸로 팔아서 도리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서서 백성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ㄱ 지웠던 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뱀이고 뱀의 후손들입니다 ㄷ. 이들의 참소로 그리스도께서 로마제국의 집정관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악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면서 하느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는 자인 양 하는 위선이 사악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하느님의 일을 사역하는 성직자로 행세하며 스스로 거룩한 신분이 ㄹ 되어 못 신자 위에 군림하는 행위가 옛 뱀의 거짓과 ㄴ 같습니다.



말은 마치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말로 흘러서, 결국은 하느님의 뜻과 반대쪽으로 유도하여 생명을 죽였듯이 사 입과 혀로는 달콤한 사랑을 말하지만 실체는 그 반대입니다.

희생의 사랑은 행하지 않고 그 반대로, 사람들을 제 앞으로 끌어모아 하느님께서 전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인 양 자기 연설을 말씀이라고 일컫고 자기에게 존칭을 붙여 떠받들게 하여서 재물과 명예를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실상 그들의 그 모든 종교적 행위는 성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형식들이어서 예수께서 거짓의 자식들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전문 종교인이 되어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된 샅 때문입니다.

ㄱ.마11:28   ㄴ.마23:4   ㄷ.눅11:46   ㄹ.마12:34, 23:33   ㅁ.요8:44   ㅂ.마23:6~12   ㅅ.요8:44, 55   ㅆ.요8:44   ㅇ.마3:8, 23:1~3   ㅈ.눅13:3   ㅊ.렘29:21, 23   ㅋ.마23:7   ㄴ.눅16:15   ㅋ.요10:1   ㅅ.마15:3~11   ㅆ.요10:13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가 샅꾼입니다.  
가련한 과부와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은 하느님 이름을 팔아 과부든 빈한한 자든 가리지 않고 헌금을 종용하여서, 심지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데 필요한 돈까지도 그 돈을 헌금하면 칭찬하고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재원으로 삼으며 자신들은 거룩한 신분으로 보이도록 구별되는 옷을 입고 사람에게 들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소리 내어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위선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천진한 마음은 다 빼앗기고, 위선 하는 것을 배워서 도리어 지옥의 자식이 됩니다.

온통 거짓뿐이면 거짓이 증명되지 않으나 하느님께서 보내신 자가 나타나서 진실을 증언하기에 그들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여 하느님께서 보내신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증오하였습니다.  
그들의 선동으로 이스라엘 군중은 예수의 처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생명의 양식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식사하실 떡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줄 알았고 마침 식사할 떡 준비를 잊고 나왔던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떡 다섯 덩이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남겼던 떡 바구니의 수를 되물어 상기시키시면서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도할 그 교훈에 대한 경고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정의하여 주셨으니 주의해야 할 누룩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에 관한 경고입니다.

ㄱ.눅20:47   ㄴ.마15:3~6   ㄷ.마23:6   ㄹ.마6:5   ㅁ.마23:15   ㅂ.요3:20   ㅅ.마27:20   ㅇ.마27:23~24   ㅈ.마16:6   ㅋ.마16:12

겨자씨가 작아도 나중엔 나무가 되듯 누룩은 불어나 전체로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이 당신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에 퍼질 것을 제자들에게 주의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세(在世) 시, 유대에 외식하던 종교인들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도 있었건만 유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를 점령하였던 서방의 철학 사상에 몰들어 하느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새 학문이 생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신학을 전공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쳤기 백성이 랍비(선생)라고 하는 존칭으로 불렀던 양대 신학 파의 전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삼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 첫째 명절의 이름이 무교절(無酵節)이라고 불리는데 명절이듯 누룩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때 그 백성을 당신의 군대라고 부르시면서 ○ 음력 정월 십사 일 밤을 기하여 애굽 사람 중 만아들은 물론, 초태생(初胎生)으로 난 짐승까지 집집이 모두 급살 맞아 죽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음력 정월 십사일 밤을 여호와와 밤이라고 일컬으셨듯이, 조선 백성이 지방어로 켄 날이라고도 일컬어 왔던 음력 정월 십사 일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정월 대보름날이 밝기까지 지역에 따라 갖가지 행사를 하였던 바로 그 명절입니다.

바를 정(正)의 십사 일이 이 칠이신 어린 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문설주에 부적을 붙이듯, 극동에서 액막이로 붉은 그림이나 글로 부적을 만들어 문설주나 인방(引枋)에 붙이고 붉은

ㄱ.마13:31~32 ㄴ.마13:33 갈5:9 ㄷ.마16:12 눅12:1 ㄹ.골2:8 ㅁ.마23:7, 요1:38 ㅂ.신16:16 대하8:13 ㅅ.출12:17, 34:18 레23:6 마26:17~19 ㅇ.출6:26, 7:4 ㅈ.출12:29 ~30, 13:15 13:15 ㅊ.출12:42

색이 재액의 유입을 막는다고 하여서 중국인들은 문설주와 인방은 물론 대문까지도 붉게 칠하듯, 집집이 급살 맞아 죽는 재앙에 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고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간수하였다가 정월 십사 일 해 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양의 피를 붉게 칠함으로써 그날 밤 재액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을 넘어서 지나갔기 때문에 유월절(逾越節 또는 過越節이라고도 함)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절을 이 칠의 십사 일 저녁부터 삼 칠의 이십일 일 저녁까지 이레 동안 집에 누룩이란 누룩을 말끔히 제거하여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無酵餅)만을 먹는 것으로 그 명절을 지키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세 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후 로마제국은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종교 탄압을 하였고 이에 저항한 유대인들을 아주 멸종시킬 의도로 학살하였습니다.

이 탄압은 우상을 신봉하던 로마의 종교적 전통을 따를 것을 법령으로 선포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단체로 낙인을 찍어 탄압한 것이어서 실상은 유대인들의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 탄압에도, 유월절이 되어서 그 민족의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의 각지와 이웃 나라에 기거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이를 기다렸던 로마 군대는 유대인으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을 봉쇄하여 그 안의 백성을 처참하게 아사(餓死)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아무리 유대 민족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민족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을지라도, 예수께서 당신과 유대 민족을 암 닭과 그 새끼로 비유하셨듯이 그 민족은 예수와 같은 혈족입니다.

ㄱ.출12:1~36 ㄴ.출12:15, 18~19 대하35:17 마26:2 막14:1 ㄷ.눅19:41~44 ㄹ.마23:37 눅13:34

예수께서는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제자가 모두 유대인이었으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성서로 보는 구약과 신약성경이 모두 유대인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준 이 유대인들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건만, 유세비우스라고 이름하는 기독교 초기의 신학자는 예수께서도 우셨던 그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갇히게 된 것은 참으로 공정한 일이었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저주를 받아야 할 백성이고 로마는 정의로 유대인을 징벌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 배운 신학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그리스도의 심정과 반대일 수 있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느님의 율법을 신봉하고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처절한 죽음을 놓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지는 못할망정, 바로 그 예수를 가르친다는 학자가 이러한 논조를 펴서 교회를 이 세상 권력에 예속시켰습니다.

그의 사상은 그대로 기독교 전체로 파급되어 서구의 기독교인 중에는 객 살이 하던 유대인을 증오하는 사조가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십자가에 못으로 박히셔서조차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비신다 그 유대인이건만, 그러한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계명인 사랑이 그 반대로 미움이라는 열매로 맺혔습니다.

기독교인 중 많은 이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자기네의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면 그 민족들까지 질시하는 자가 되며, 나아가 같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기네의 신조와 교리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마귀의 신봉자로 몰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편이 됩니다.

ㄱ.요4:22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서 ㄴ.눅23:34 ㄷ.마24:49 요16:2

귀신이 들렸던 자는 예수께 고침을 받았어도 ㄴ 외식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ㄷ.

외식으로 믿을 바에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편이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ㄷ.

죄 중에는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ㄷ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찬양하고 행실로 거역할 바에는, 차라리 말로 예수를 거역하는 죄가 사하심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갈릴리의 나사렛 태생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ㄷ.

비록 오해를 하여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지만 성서만은 곧이곧대로 보는 순수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나다나엘 같이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알아보지 못합니다 ㄷ.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들이 누룩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접함으로써 오해를 풀고 상제를 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온갖 종교적 행사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주의 계명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ㄷ 징벌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박한 때, 유대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ㄷ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천사께서 유대인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ㄷ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께서 재림하실 환난의 때에나 비로소 주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ㄴ.마8:16, 9:33 막1:23~25, 5:1~20 9:14 ㄷ.마23:13~36 눅11:42~52 ㄹ.마12:39~45 눅11:24~26 ㅁ.마12:31~32  
눅12:10 요1서5:16 ㅂ.요1:47 ㅅ.마23:39 ㅇ.마7:22~27 ㅈ.눅14:23 ㅊ.마23:38~39 눅13:35

때에 ㄱ 유대민족 중 많은 이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기쁨으로 상제를 영접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신학자 중에,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고 또 부활하신 육신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신 언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임금으로 섬겨서 충성하며 그 임금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유대교 인과 팔레스타인의 교도 중 많은 이가 이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메시아의 출세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 만큼 차별과 증오와 학살을 받아왔던 민족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학대와 핍박으로 고난을 받은 만큼 그들은 그 해원을 고대하는 것이고 고대하는 만큼 그때가 되면 기뻐합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하여 구사일생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진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서방으로 흩어진 다수의 유대인이 수백 년을 넘어 이천 년이 되었어도 무교절이 되면 그곳의 빵을 먹지 못합니다.

옛 유대에서는 호떡 같이 구워 만든 떡을 먹었는데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전체에 퍼져 내용은 비고 겉모양이 부푼 빵이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무교병(無酵餅)의 참 의미는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신조로 받아서 신조로 살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집집이 급성 유행병으로 급살맞아 죽는 큰 환란의 날, 그 재앙을 넘기고 사는 길은 오직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교훈뿐입니다.

그 교훈은 신학이라는 것으로 변질하지 아니한 본래의 순수한 교훈이어야 합니다.

ㄱ. 마24:30 계1:7    ㄴ. 눅7:19 요1:41, 4:25    ㄷ. 출11:5~6 겔14:21 눅21:11 계6:8    ㄹ. 단12:1 마24:21 눅21:23 계2:22, 7:14

이 파, 저 파를 떠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것만이 멸망치 않는 길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어린 자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놓고 따진다면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느님의 말씀은 인생이 분석하고 정의할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또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성서의 말씀을 논설 없이 글자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믿음에는 학설(學說)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제국 콘스탄틴 대제의 치하에서 교회사를 집필하였던 신학자는 교회에 대한 로마의 가장 큰 박해에서 변절이 아니고는 사형을 면할 수 없었던 구금 상태에서 석방된 후로, 유언비어를 만들어 그 제국의 대제를 하느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신격화하였습니다.

그 대제가 자신의 권력쟁탈을 위하여 벌린 전쟁터에서 꿈에 예수의 십자가와 글귀를 보고 승전하게 되었다는 유언비어입니다.

그 제국의 형틀에, 그 제국의 총독 이름으로, 그 제국의 역적으로 판결하여, 그 제국의 군병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자는 오로지 받들어야 할 하느님의 자리에 그 제국의 대제를 붙여 세워서 그 제국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신성한 제국으로 암시하며 하느님께 찬양하는 것을 빙자하여 그 대제를 같이 찬양하여서 죽을 때까지 온갖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대제가 소집한 종교회의에서 한 당(黨)의 이설을 교회 전체의 신조로 삼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주인공이 그 신학자입니다. 그가 그 이설을 주장하였던 당이 아니었기 자신이 앞장서 그 이설을 수용함으로써 자기와 같은 다수의 동료를 선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죄수를 사형시킬 때 사용하였던 로마제국 고유의 형틀이어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형벌과 고난을 상징하는 뜻으로도 쓰였던 말인데 그 유언비어 후로는, 그 대제가 교회를 탄압했던 이전부터 자기네 무장에 붙여왔던 표식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채색되어 그 종교 단체의 상징으로 둔갑하게 되었고 성서의 안식일을 폐하고 그 대신 그 대제가 자기네 전통의 신으로 섬기던 태양(日)신의 날을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일로 지키도록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세에 신설한 성탄절도 실상은 그 태양신이 출생했다고 하는 로마 고유의 축제일을 그리스도의 성탄절로 변색시켜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결만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속 내용은 모두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적인 우상숭배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정의한 교리를 신조로 삼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교단입니다. 성서의 모든 신위(神位)의 말 씀을 인위로 변질시켜서 교훈으로 받들고 ㄱ 숭배하는 교단이 된 것이어서 그곳의 모든 종교적 의례는 성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예법들입니다.

그곳에서는 거룩한 자가 사람의 심사를 거쳐서 관정받는 대상입니다. 어느 인간이 거룩한 자인가를 심사하여 성호(聖號)를 부여하는 자가 그 교단의 고위층 인사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느님 쪽을 형용하는 어휘건만, 그 이름씨의 자격을 저 속한 인간이 심사하여서 부여하니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도대체 무엇이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그 첫 기도가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여 달라는 ㄴ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얼마나 저속하게 변질할 세상이 되기에, 기도의 첫 마디가 그 이름이 본래대로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일까?

그 거룩 성(聖)자를 이름씨 앞에 붙이는 호로 만들어 신약 전서에 나오는 인물들에 붙여 놓고 그 범주에 자기네 성직자들을 끼워 넣어서

ㄱ.마15:9 막7:7 엡4:14 골2:22 ㄴ.마6:9

한 통으로 여겨지도록 하고 십자가와 그 인물들의 형상을 제작하여서 ㄱ 그 형상을 거룩하게 여기어 숭배하게 하고 그 성호를 그 교단의 의례와 기구들과 건축물과 심지어 자기 나라의 이름에까지 붙이기에 이르렀고 갖가지 허례와 허식으로써 거룩하고 장엄하게 꾸미는, 그 꾸밈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표방하는 이름은 예수인데 속 내용은 온통 옛 그리스와 로마에서 우상들을 섬기던 종교입니다. 이는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ㄴ 회개를 통하여 하느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황제가 자신을 정상으로 세워서 받드는 제국의 통일된 교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로마 전통의 신들과 그 신전에서 행하는 예식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흡수한 것입니다.

그의 전임 황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멸하려고 수년간을 계속하여 잔혹하기 그지없는 박해를 하였으나 교회의 신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박해가 도리어 국가에 파국을 불러오게 되었고 이에 못 이겨 그는 결국 교회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권력 다툼의 내전을 벌렸던 이 황제는 상대편 황제가 다시 그리스도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하였기 뜻하지 않게 그 많은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자기편이 되었고 그가 승전함으로써 그는 그 신자들을 자신의 전통 종교에 흡수하여서 범국가적인 통일 교단을 창설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분할하여 통치하여 오던 제국을 통합시켜서 로마의 권력을 한 손에 쥐는 군주가 되었고 로마의 전통으로 태양신의 아들이자 자처했던 로마의 황제가 제국의 종교까지 통합시키고 그 교단의 임금이 되었으니,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대왕이라고 불리듯이 그 황제만은 로마의 대제로 불립니다.

ㄱ.출20:4 ㄴ.마16:24 막8:34 눅9:23



그리스도인에게 임금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ㄱ.

급여를 받고 일하는 샅꾼은 그가 샅꾼인 까닭에 환난의 날이 닥치면 자신부터 지키려고 제 살기 위해 양 떼를 버리고 도망잡니다 ㄴ.

다른 목자를 쫓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쫓는 그의 양이면, 그의 목자는 선한 목자이어서 어떤 환난에도 당신의 양을 책임지시는 목자입니다 ㄷ.

양의 주인이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당신의 뒤를 따르는 그의 양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십니다 ㄹ.

목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은 형제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ㄴ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비 부(父)와 지도 목(牧)과 선생 사(師)자의 칭호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칭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목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ㄹ 선생은 그의 보내심을 입은 보혜사(保惠師) 한 분이실 뿐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사대로 어떤 형제는 새로운 형제를 가르치고 어떤 이는 병을 고치며 어떤 형제는 예언하는 등으로 ㄹ 형제들이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기 위하여 서로 교제하는 사림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ㄱ. 요10:1~2, 7~9 ㄴ. 요10:12 ㄷ. 마18:12 ㄹ. 요6:39 ㄴ. 마23:8~10 ㄹ. 마2:6, 23:10, 26:31 요10:11~13, 16 ㄴ. 마23:8 고전12:13 엡2:18, 4:4 ㄹ. 고전12:4~11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학파들이 저마다 자기네 이름의 문을 붙이고 자기네 울타리로 막아놓고 자기네의 학설을 가르쳐도, 성서에 정의하여 주신 그 하나만이 참입니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며 풀을 얻는 그 문은 ㄱ 오직 그리스도 하나일 뿐입니다.

양들의 주인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라고 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학설은 이 파, 저 파 다 누룩이요. 그리스도의 교훈만을 그대로 ㄷ 쫓는 교회는 정통신학도 신신학(新神學)도 있을 수 없으며 로마 가톨릭교도 개신교의 수많은 교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 저 문을 떠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것만이 멸망치 않는 생명의 길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과 반대가 신학인 것이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이성을 믿는 것이어서 그 지성으로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의하는 사람의 학문이어서 자연히 파가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또 가라사대 『보혜사(保惠師)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ㄹ 말씀하시어서 받은바,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깨달음은 학문으로 배우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ㄴ 하느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이나, 그 예배에 성령과 진리가 비었으면 ㄹ 자연히 겉만 꾸미는 외식이 됩니다 ㄴ.



한 목자 아래 다 같은 형제입니다. 형제가 서로 아래 신분이 되어 봉사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ㄱ. 요10:9 ㄴ. 마16:6 ㄷ. 고전5:8 ㄹ. 요14:26 ㅁ. 마18:20 ㅂ. 요4:24 ㅅ. 마 23:28 ㅇ. 마23:8 눅22:32 요10:16 ㅈ. 마 20:26, 23:11 막9:35 요13:14~17 ㅊ. 요13:35, 15:17 ㅋ. 눅10:28~37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올려보며 혀로 감사의 소리를 연발하며 사랑의 말 잔치를 하고 자신이 사랑을 행하는 희생이 없으면 그것이 위선입니다.

교회에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격증이 필요한 것인가?

자격증을 얻기 위하여서는 일단 신학을 이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고 자신이 예속하는 교파의 인가를 받는 의식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신을 교인과 철저히 차별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얼굴에 땀은커녕 옷에 흠한 점 묻히지 않는 신분이 되었듯이, 자격증을 가졌으면 새파랗게 젊어도 백발의 늙은이가 존칭을 붙여 불러야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젊은이의 설교를 청종하여야만 하는 자격증의 세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오직 뿐인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켜든 단체가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국가의 인가와 교파의 인허가 없이는 아무도 틈탈 수 없는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적 계급의 성입니다. 한 국가가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각 어족의 언어 위에 앉아 군림하는 국제적인 성이어서 국가의 통치권자들조차 말세에는 다스림을 받을 만큼 큰 성입니다.

그 큰 성의 임금이라고 하는 음녀(淫女)의 옷은 자주 빛과 붉은빛인 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하셨으니 궁전에 소장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 많은 장신구는 누구의 땀과 고혈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재산 중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것은 얼마나 될까?

ㄱ. 눅18:11 ㄴ. 마23:3 ㄷ. 마23:4 ㄹ. 눅16:15 ㅁ. 행1:8 막6:7 눅24:49 ㅂ. 계17:15 ㅅ. 계17:18 ㅇ. 계18:7 ㅈ. 계 17:4 ㅊ. 막12:40

옛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은 현대에 비하면 특권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독하였어도,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감히 지금처럼 독점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흑세무민한다고 증오하고 핍박하였을지라도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감히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만민을 위해 있는 처소로 세워진 성전과 또 그들의 회당에 자기네만이 가르칠 권한을 가질 정도까지 악하지는 못하였었기 사도들까지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유대교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돈을 좋아했을망정, 매주 반복해서 모금하기까지는 못했으며 신자에게 맞대놓고 하느님께 헌금하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빛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전례대로 하느님께 예배할 행사를 마련하고 성전을 유지하자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서 성전 세라는 명목으로 장정의 남자에게서 매년 반 세겔(하루 품삯 정도의 단위)씩 추렴하였고 손보 궤(損補櫃)라고 명명한 모금함을 마련하여서 성전의 손(損)을 보고 보수하는 비용을 충당하긴 하였어도, 감히 헌금이라는 말을 지어내기까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느님께 돈을 바치라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전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 돈을 바치는 것은 실상은 정결한 것과 속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신 율법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성전 세와 손보 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선생들과는 직접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일을 하는 제사장이 아니었고 가르치는 일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세 외에 십일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대 히브리 백성이 숙원의 토지를 얻어 농경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ㄱ.마21:23, 26:55    ㄴ.사56:7 막11:7    ㄷ.눅4:15, 44, 13:10 행9:20, 13:5, 14:1    ㄹ.마17:24    ㅁ.막12:41~44 요8:20

때,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하여 ㄱ 나머지 열한 지파가 토지 소산의 ㄴ 십 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쳤던 계율이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그 이름 같이, 왕과 왕의 군사를 갖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가던 히브리 백성이 왕에게 바치는 조세와 같이 ㄷ 바쳐서 레위 인이 생활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의 혈통만이 제사장과 성소의 일들을 할 수 있고 십일조로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가 그 계율들을 공표한 지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던 때로부터 자그마치 천이백여 년 전의 일이고 지금으로부터는 삼천 년이 훨씬 넘는 고대입니다.

그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토지를 경작하게 된 때조차 제례의 수많은 계율을 계율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율법입니다.

인구는 계속 불어나나 율법에 따라 성소의 제단이 더 있을 수 없었고 율법에 따라 성소는 치수까지도 하느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어서 성소를 인위적으로 확장할 수 없었던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세(在世) 때는 이미 많은 백성이 농경과 목축으로 살지도 않았고 레위 인들도 생업을 갖고 살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더는 지킬 수도 없어서 지키지 않았던 수많은 계율 중 유독 십일조만을 걸러내어 지켰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정통임을 나타내려고 소득의 십 분의 일을 박하와 회향과 근채(根菜) 같은 고가 농산물로 사서 ㄷ 바쳤습니다. 율법에 따라 가축이나 토지의 농산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십일조를 지킨 것은 십일조가 하느님을 향한 의무임을 나타내 보여서 모두 십일조를 내게 하기 위한 것이나, 그들의 이 같은 행위를 예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ㅁ.

ㄱ.민18:21, 24, 26    ㄴ.신14:22~29    ㄷ.삼상8:14~18    ㄹ.신14:26    ㅁ.마23:23 눅11:42

십일조가 하느님의 법인 이상, 지키려면 법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행위는 의(義)와 인(仁)과 신(信)과 같은 도덕에 ㄱ 비하면 하루살이와 약대입니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냈기 ㄴ 천자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참으로 지켜야 할 과제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공의(公義)나, 하루살이를 걸러내어 지키는 종교적 행위를 빌미로 삼아서 중하기 그지없는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기 ㄷ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일조 하나를 걸러내 자신의 의로움을 선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였습니다. 신자에게는 십일조가 출혈이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수입의 원천이기 십일조를 걸러내 지켰던 것이고, 하느님의 법이 뚜렷이 있거늘 레위의 핏줄도 아닌 자가 가르친다는 구실로 사제의 몫을 사취하는 것이었기 실상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 ㄷ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소가 또한 온통 상인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면 곳에서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이 십일조의 규례대로 돈을 가지고 와서 농산물로 바꾸어 바쳤는데 그 농산물은 다시 상인에게로 건네져서 환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의 상을 들러 앉으시며 노하셨던 ㄹ 배경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관습에 젖어서 자신들의 불의를 깨닫지 못하나, 일반 신자들이 짊어진 고통은 말입니다. 교회에는 십일조를 바쳐야 하고 국가에는 정세, 관세 등 각종 조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민족이 가장 질시하였던 사람이 다름 아닌 세리(稅吏)였습니다 ㅂ. 동족의 고향을 짜내어 제국의 총독부에 바치는 자였기 반민족 주의자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ㄱ.마23:23 ㄴ.마23:24 ㄷ.눅11:42 ㄹ.마7:23 ㅁ.마21:12 ㅂ.마9:11 ㄷ.눅18:9-14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덮에 걸리게 할 목적으로 해롯 정당(政黨)의 당원을 데리고 와서 물었습니다. 『가이사(로마의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ㄱ.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계층과 함께하셨던 예수께서 설마 반민족적인 답변을 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ㄴ, 고소할 확증을 잡기 위하여 증인이 될 해롯 당원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가하다고 하시면 반민족 주의자가 되고 불가하다고 답하시면 국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돈을 가리키시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ㄷ 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감히 하느님께 드릴 물질이 아닙니다. 돈을 하느님께 바쳐서는 아니 됨을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지, 사람이 함부로 율법을 변조하여 지켜서는 아니 됩니다. 하느님께 바쳐야 하는 예물은 율법에서 구별하신 대로 하느님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농축산물이라고 하여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하느님의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느님께 드릴 하느님의 것은 농경과 목축을 생업으로 하지 않고서는 구별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이고 ㄹ 또한 하느님께 바친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ㅁ.

국가에 바치는 관세와 정세도 실상은 만유의 주이신 하느님의 아들들에게는 부당한 것이라고 이르신 ㅂ 성자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돈을 손보 궤에 넣는 것은 칭찬하셨습니다 ㅅ.

그 과부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돈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성전의 보수비를 임의로 보탠 자선이기 때문입니다.

ㄱ.마22:17 ㄴ.마22:22 ㄷ.마22:20-21 ㄹ.레27:10, 26,32 ㅁ.레27:26 ㅂ.마17:25-27 ㅅ.막12:41-44

그 여자가 십 분의 일을 내었는지 전 재산을 내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광고하여 자신이 의로운 부류임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반대입니다.

이 과부는 남모르게 자신 쪽을 희생하였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실상은 자신도 모르게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에는 사유(私有)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ㄱ. 성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때 기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와 그의 부인이 교회에 낼 돈을 마련하려고 소유의 땅을 팔았는데 판 돈의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를 내었다가 그 부부가 차례로 급살맞아 죽었습니다 ㄴ.

다른 신자들이 제자들 앞에 놓은 돈이 교회의 궁핍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스스로 내는 자선인 것을 ㄷ,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는 하느님께 바쳐야 하는 의무로 알았기 성령까지 속이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궁핍한 형제를 위하여 자선하는 돈이면 굳이 따로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돈입니다.



자기 땅을 조금 팔든 다 팔든, 자기 돈을 떼어 주든 다 주든, 자기의 임의(任意)건만 누가 보면 어떻다고, 몰래 감추어서 속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셔서 은밀한 것을 보시는 ☐ 하느님과 상대가 아니라 사람에게 뵈어서 ♣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였기,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구제를 사람이 보게 하지 아니하며 ㅅ 기도도 ㅇ, 금식도 ㅈ 사람이 보고 듣게 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한 바탕인데 외부로 알려져서 사람들이 칭찬할 것을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불효하는 자신이 거꾸로 의롭게 보이고 칭찬을 받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ㄱ.행4:32 ㄴ.행5:1~11 ㄷ.행4:32~37 ㄹ.행5:4 ㅁ.마6:4, 6, 18 롬2:16 ㅂ.마6:1 ㅅ.마6:3~4 ㅇ.마6:6 ㅈ.마6:18

종교인들이 돈을 하느님께 바치는 헌금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형제가 시험에 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돈 가진 자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으면 그것으로 어렵게 사는 형제부터 찾아서 남모르게 도와야 ㄱ 하는 것이 성자의 교훈이고 성자의 계명입니다 ㄴ.

어차피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어서 ㄷ 그것을 하느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과 ㄹ 사귀는 데 ☐ 그 주인의 계명을 지키려고 자선에 재물을 탕진하는 ㅂ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형제는 도움을 받고도 갚을 길이 없어서 대신 그에게 복을 빌고 그 도움은 하늘에 박혀서 여러 배로 그 보응을 받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ㅅ.

하느님의 계명은 버려두고 수많은 율례(律例) 중에서 십일조 하나를 걸러내 지킨다고 무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느님의 금령(禁令)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벌을 받는 것이어서 속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ㅇ.

율법은 무시할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인생의 허물을 대속(代贖)하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아니시면 도저히 무죄할 수 없는 인생임을 증명하시는 ㅈ 하느님의 만고 불변의 법입니다.

효도와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 중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ㅈ

효도는 수많은 율례보다 중한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ㅋ.

선행과 상관이 없으면, 하느님께서 당신께 드리는 예물을 금하셨고 종교활동으로 모이는 성회(聖會)도 금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소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ㄱ.마19:21 ㄴ.눅12:33 약2:15~16 요1서3:17~18 ㄴ.요13:34, 15:12 요1서4:21 ㄷ.눅16:9, 11 ㄹ.눅16:13 ㅁ.요15:13~14 ㅂ.눅16:9 ㅅ.마6:4, 10:42, 19:29 ㅇ.레5:17 약2:10 ㅈ.롬3:20 갈3:13 ㅊ.마15:3~6 ㅋ.출20:12 신5:16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정한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困憊)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



하여 변호하라』라고 하셨습니다ㄱ.

모여서 예배하는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원하시는 것이요, 선행과 관계 없는 종교적 행사는 하느님께서 도리어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선행과 별도로 예배한 것이 가인의 제사이고ㄴ 그것이 외식입니다.

독생하신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간음하던 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더불어 친구가 되셨으며 살인자도 용서하시었으나 오직 외식하는 자만은 저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가족들과는 떨어져 계셨으나 제자들과는 안식일이든 아니든 항상 함께 계셨기 주와 함께 모든 형제가 서로 사생활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족이었습니다ㄷ.

한 주간 동안 사생활로 살다가 일요일이면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한 사람의 얼굴만을 올려보고 그의 설교를 듣고 폐회하면 다시 사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할 그 하느님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 사이의 사귄다입니다ㄹ.

ㄱ.사1:11-17 ㄴ.창4:7 ㄷ.마12:49 ㄹ.요1서1:3, 6, 7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말씀하신 진리의 신입니다ㄷ.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안에는 성령도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 종교인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의 표적(表蹟)과ㄴ 사도들이 증언한 성령의 각양 은사(恩賜)를ㄷ 각종 설(說)을 붙여서 비방합니다.

그들이 예배하려고 모인 곳에서 어느 신도가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의 편지서 같이 예언을 한다면ㄹ 미쳤다고 쫓아낼 모임입니다.

현대에 와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이라는 학설을 내세우며, 오직 자기네들의 가르침과 의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적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이적을 행사하시고 이적으로 부활하셨으며 가라사대 당신이 믿기지 못하더라도 당신께서 하신 이적을 보고 믿으라고ㄹ 말씀하셨으며 믿는 이들에게 당신과 같은 부활의 이적을 언약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성령의 표징조차 체험은커녕 인정하려고도 못하는 자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 있는 자가 썩지 않는 체질로 변화되는ㄷ 그 큰 구속의 이적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표적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키시고 또 나타내시는 증거가 됩니다ㄱ.

스스로 하느님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하면서 세상을 책망하는 자의ㅇ 소리와 믿는 자의 신령한 징표들을 비방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신의 모순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로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습니다ㄱ.

예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였다면 그 예수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나ㄱ,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칭하는 자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ㄷ.

ㄱ.요14:17 요일4:6 ㄴ.막16:17, 16:20 행2:43, 5:12, 14:3 고전14:22 ㄷ.롬1:11, 12:6-8 고전12:4-11 ㄹ.고전14:22 ㄹ.요14:11 ㄷ.고전15:51-53 ㄱ.막16:20 ㄷ.요5:36 ㄹ.요16:8 ㄱ.마12:32 ㄷ.요1:46 ㄱ.마12:32 ㄷ.눅12:10

성령은 육신이 아니시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의(義) 자체를 거역하는 것은 그대로 불의의 화인(火印)이 찍히는 일입니다.

어린양께서 희생하신 공로로 오시는 신을 거역하면 더 무슨 공로로 죄의 사하심을 얻으리까?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고 명하신 의식이라면 너나없이 따라야 할 것이로되, 마치 하늘에 창을 겨누듯 뽕족한 건물을 높이 짓고 일요일이면 그곳에 찾아가 사제의 대표기도를 듣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분위기에 젖어서 재물을 봉헌하는 행사가 하느님께 제사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찬양 속에서 모인 시민을 대표하여 사제가 신전의 높은 단에 올라가 신상 아래서 의식을 거행하며 그 우상에게 재화를 봉헌하는 행위는 옛 그리스와 로마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였는데 그 바울 아니라 그 누구도 이러한 전도를 일컬어 감히 예배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홀로 인생을 위하여 흠과 티가 없는 제물로 제사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유대교인들이 전례대로 지켜오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 안식일 그 이튿날이 주의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바로 주일(主日)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세운 전(殿)이나 당(堂)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속에 하느님의 신이 임하시어 계시는 성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당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느님을 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가식일 뿐입니다.

ㄱ. 행13:5, 18:4    ㄴ. 히2:17, 4:14~15, 6:20, 7:26, 9:11    ㄷ. 마12:8    막2:28    눅6:5    ㄹ. 요2:19~21, 4:21    ㅁ. 눅17:21    고전3:16    고후6:16    벤전2:5    계3:12, 21:9~14    ㅂ. 요14:16    롬8:9    ㅅ. 요4:24

신령하게 보이도록 꾸민 전당에서 신령하게 보이도록 꾸민 의례로써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느님께 고하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인 사람의 시청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식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느님께 예배하였어도 가인은 인위적으로 예배하였고 아벨은 하느님의 뜻을 찾아 하느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하신 그대로 좇아서 양을 제물로 드려서 예배하였습니다.

신령한 것을 당연히 사모하여야 하나, 외부로 나타나는 표적만을 보고 좇을 수는 없습니다.

말세가 되어 많은 이들이 술수와 눈속임까지 써가며 성령의 권능임을 흉내 내어 각양 방법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세대입니다.

표적이 성령께서 역사(役事) 하시는 증거가 되어도 거짓 선지자들 또한 표적을 행하며 미혹한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신령하다고 해서 그 영을 다 믿을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외형적인 표적만을 좇으면 미혹에 빠집니다. 신앙의 핵심은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희생적 사랑이요 그 사랑을 행하는 선행이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교훈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은 기도를 통하여 받으나 형제를 위한 선행이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사욕을 위해 권능을 구하는 기도와 금식이면 사악한 영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좇으라고 하신 말씀은 나 자신의 안락과 명예와 부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각양 종교적 행사를 거행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ㄱ. 창4:1~5    ㄴ. 롬1:11, 고전2:13, 14:1, 12    벤전2:2    ㄷ. 마12:39    ㄹ. 살후2:9    ㅁ. 막16:20    요5:36    행2:22, 43, 5:12    ㅂ. 마7:22, 24:24    계13:11~14    ㅅ. 요일4:1    ㅇ. 막9:29    ㅈ. 마10:38, 16:24



모아 놓고 도리어 재물을 바치게 하여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행위만큼은 불법의 ㄱ 행위입니다. 병자를 고칠 때 기록하신 임의 이름을 팔지 않는다면 모르나, 능력을 받고 병자를 고쳐주되 거저 고쳐주며 천국을 증언하라고 명하신 ㄴ 자의 이름을 팔아가며 헌금을 모금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못으로 박아 사형시키는 형틀이나 또한 형을 받은 사람이 못 사람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에까지 가게 한 괴롭고 무거운 고난의 짐입니다.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형제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자와 형제를 위해 자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분명히 서로 반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좇으라고 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팔아 못 신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ㄷ 지울 수는 없습니다.

교인에게 각종 종교적 예식을 주례하여서 헌금을 모금하고 그 답례로 성 삼위 이름으로 축복이나 축사를 베푼다면 그것은 기록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파는 영업일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치켜든 단체에서 하느님께 헌금하면 물질적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는 소리를 하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ㄹ 첫 말씀으로 공언하신 성자이시오. 재물을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ㄴ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ㅁ 하신 말씀과 모두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가진 재산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ㅂ.

전도면 전도지 굳이 전도사업이라고 말하면서 그사업이 하느님의 성소를 짓고 전도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업이라고 공언하니,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아야 할 하느님을 사람의 돈으로써 사업하는 자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ㄱ. 마7:23 ㄴ. 마10:8 ㄷ. 마23:4 ㄹ. 마5:3, 11:5, 19:23 눅6:20 ㅁ. 눅16:9 ㅂ. 마19:24 막10:23 ㅅ. 막10:21

교회에 궁핍한 형제를 돕기 위한 사랑의 돈이 ㄱ 쌓이는 것이면 사도의 편지대로 오죽이나 좋으련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모임에 정작 찾아야 할 형제들의 어려운 사정은 ㄴ 외면하고 도리어 부유한 자를 찾아서 반긴다면 그러한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세상을 만드는 온상이 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ㄷ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군이 된 후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도 장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며 ㄹ 생활하였고 이를 본받으라고 ㅁ 하였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도 돕는 자가 ㅂ 사랑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ㅅ. 그리스도의 사역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밥은 자기가 벌어들여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ㄹ.

치유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공하는 숙식과 일용을 거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일군이 그 일의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을 자기에게로 모으지 않고 자신이 찾아가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쳐 주되 보수 없이 고쳐주라고 ㅈ 하셨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제(司祭)와 평신도(平信徒)가 뭇 말이오?

사제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폐하신 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ㅊ.

사제라고 하는 특권이 없는 자는 스스로 참회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실 수 없고 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에게 계급사회의 평민과 같은 평신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ㄱ. 행4:33~35 고전16:1 고후9:12 ㄴ. 요일3:17 ㄷ. 행23:6 빌립3:5 ㄹ. 행18:3 데살전2:9 ㅁ. 행20:34~35 고전4:6~13 데살후3:8~9 ㅂ. 행20:35 ㅅ. 마10:9 ㅆ. 마10:10 눅22:35 ㅈ. 마10:8 ㅊ. 요2:19~21, 4:23 히2:17, 7:27, 9:11~12 요일2:2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7 자가 당신의 어린 양 떼를 맡아 풀을 먹이는 8 사명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으나 목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오 9. 신자의 또 다른 선생은 10 보혜사(保惠師) 한 분이실 뿐입니다.

옛 유대의 백성으로부터 선생이라는 계급으로 불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네의 경건한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하였어도 아주 사람들을 자기 앞에다 모아놓고 그들 귀에 소리 내어 대표 기도를 하기까지는 감히 못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아니라, 너희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11 명하신 임이 그리스도이건만 도리어 청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듣도록 소리를 높이는 기도가 웬 말이오.

나 자신부터 부정할 입을 가지고 살며 나 자신의 사소한 기도조차도 하느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내가 뻔뻔하게 다른 이를 대신하고 또 많은 이들을 대신하여 대표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삼위일체(三位一體)설에 불복하다 처형된 자들의 수가 얼마였으며 신령에 이끌리는 김새만 있어도 마귀로 몰려서 죽은 자들은 얼마였소.

신이 성신이 아니라 설령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당신의 일꾼에게 명하신 말씀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이를 고쳐서 살리라고 명하셨지 12,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으로 죽이라고 명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啓示)에 붉은 옷을 입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과 그 성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음녀(淫女)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 피에 취(醉)하여 있는 것을 보고 『기이(奇異)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겼다고 13 하였습니니다.

7.행1:8 8.요21:15 9.요10:16 10.요14:16 11.마6:6 12.마10:8 13.계17:6

장래에나 나타날 음녀의 정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요한이었기, 계시로 그 음녀를 보면서 그토록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섬기는 예는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14 것이건만 마음속에 그 신령과 진리를 가졌으면 도리어 이단과 마귀로 몰리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령과 진리에 혈안이 되어 같은 입을 신앙하는 자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그들의 신성과 신조가 꾸며낸 거짓임이 드러날 것을 15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과거와 같이 그 허위가 지금도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세상이 여전히 그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같이 모두 죽이고 불태워서 박해하는 쪽이 자기네 쪽을 정당화한 일방적인 기록만이 남겨졌고 세상은 그것을 역사라고 일컬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保惠師)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16

진리의 영을 받는 것은 이같이 세상과 나뉘는 것입니다 17. 성령을 받은 자는 자연히 세상의 불의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불의에 맞서서 세상을 책망하는 18 자의 편이 됩니다.

성령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19 자의 말씀입니다. 참되고 20 의로우신 영(신)이시어서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오 21.

7.요4:23 8.요3:20 9.요14:15~19 10.요15:19, 17:14~16 11.요7:7, 16:8 12.요12:48 13.요일2:27 14.요16:8



어린양의 이름을 내세우는 단체의 그 누구일지라도 진리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대로 세상에 속하여서 ㄱ 세상 것을 사랑하고 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고 ㄷ 세상 또한 자기 것을 사랑하여서 ㄹ 세인들이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지도층이 누구요, 지금 세상은 악한 쪽으로만 이끌려 어제가 옛날같이 인정은 메말라가고 온통 속이며 음란하고 험악하여지고만 있어서 하느님의 진노가 코앞에 이르렀건만, 많은 교인을 거느린 그 보편적 ㄱ 종교의 지도자들은 임박한 진노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자기 세상 만난 자로서 찬양과 감사와 축복만을 발설합니다 ㄴ.

재앙은 하느님의 진노입니다.

자기네 말을 듣는 교인들은 이미 거듭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것과 하느님께서 자기네를 사랑하시는 자기네의 하느님임을 반복하여 주입해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ㄱ 사람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감사헌금을 하고 입으로 찬송은 하되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와는 ㄴ 동떨어진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옷에 티가 묻어 더러워지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어린양의 피로써 빨아야 하는 ㄱ 회개가 ㄴ 신앙입니다.

갖가지 종교적인 행사는 있으나 회개를 통하여 고쳐 행하는 선행만 빠지면 사탄으로서는 성공하는 것이고 쪽 정이는 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생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을 못했기 흠이 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生)의 자랑 ㄴ 속에서 살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자처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교훈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다 막상 닥치는 재앙에 구원을 ㄴ 받지 못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소?

ㄱ. 요15:19 ㄴ. 요일2:15 딤후4:10 ㄷ. 요일4:5 ㄹ. 마7:13 ㅁ. 요15:19 ㅂ. 렘23:16~22 ㅅ. 눅16:15 ㅇ. 마3:8 요15:2~16 약3:17 ㅈ. 계7:14 ㅊ. 눅5:32 ㅋ. 눅3:17 ㅌ. 계14:5 ㅍ. 요일1:16 ㅎ. 마24:22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면 으레 하는 감사의 기도를 상제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ㄱ. 지금의 많은 종교인은 유난히 감사할 것을 강조하며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나 진실한 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감사해 합니다.

하느님께 돈으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 헌금하면 사제가 손을 들어 성삼위의 이름으로 베푸는 축복을 통하여 받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조차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사랑에서 행한 봉사와 희생은 돈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허끝으로 쉽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내뱉거나 돈으로써 답례하여서 청산하지 않고 은혜를 마음에 평생 간직하며 항상 갚고자 합니다.

하느님께 예물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느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켜야 받는 복이 하느님의 복입니다. 하느님의 계명대로 육친을 공경하려면 하느님을 섬기는 것과는 달리,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성전에 바쳐서 부모를 공경치 못하게 되는 것은 괜찮다고 가르치는 종교인은 못 사람을 오염시키는 자입니다 ㄴ.

그들은 자기네의 관례대로 성전에 돈 바친 자를 축복하나 하느님의 복은 부모를 공경하여야 받는 복입니다 ㄷ. 가룟 유다는 명색이 제자이면서 교회의 돈을 사사로이 쓰다 ㄹ 결국엔 예수를 은전 서른 냥에 팔았습니다 ㅁ. 그리스도를 잡으려는 대제사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길으로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듯 예수께 로마의 예로써 입을 맞춰 인사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ㅂ.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성자께서 주신 떡을 먹었으나 그는 성령 대신 마귀가 들어가 ㄱ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돈의 종이 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낫습니다 ㄴ.



축복도 모든 이가 보도록 옮겨 다니며 세 번씩이나 축복하였고 많은 백성이 듣도록 음률에 맞추어 큰 소리로 축복하였습니다.

말인즉,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 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代言)하는 선지자의 말이며 축복 자체가 그 소리를 듣는 모든 백성이 환호할 듣기 좋은 소리건만 한 술 더 보태 음률까지 곁들여진 축복이니 그대로 찬양 성가입니다.

ㄱ.유1:11 ㄴ.수13:22 ㄷ.민22:3 ㄹ.민28:11

게다가 발람은 그곳의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이니 ㄱ 그 백성이 미혹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발람은 모사꾼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다보는 자리에서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반대편 왕에게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서 그 둘이 함께 짝을 지어 제물을 올리고는 그 왕으로 하여금 그 제물 곁에 서 있을 것을 지시하여 주고 자기는 그곳에서 떠러져서 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이 하나님을 섬겨서 제사하는 주체로 보이도록 꾀계(詭計)를 썼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위장하고서 천연덕스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찬양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유인했던 뱀의 자손다운 ㄹ 인물이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삶을 위하여 축복해주는 그 종교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인된 왕이었을 뿐, 그의 내심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그 자리가 또한 바알의 자리였으며, 제단도 하나님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발람을 위하여 ㄷ 쌓은 것이고 제물도 발락 자신의 ㄴ 제물입니다.

온통,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장만한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올무에 걸려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동료로 오인하여서 사람이 만든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그 왕의 백성과 어우러져 먹게 되었고 또 서로 어우러져 혼인까지 한 것이니 듣기 좋은 저들의 소리로 말하면 이것이 「화해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교훈을 받아 그렇게 세속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까지 그토록 진노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바알이 태양신이어서 가라사대 『(이스라엘)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진노』

ㄱ.민23:7 ㄴ.민23:3 ㄷ.계2:14 ㄹ.마3:7,12:34 요8:44 ㅁ.민23:1 ㅂ.민23:3

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라고 ㄱ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올 때, 저편 백성의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온 자를 그 여인과 함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인 ㄴ 비느하스가 있었던 덕택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셨던 진노의 염병이 그쳤기 다행입니다.

그 염병에 죽은 자가 자그마치 이만 사천 명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이 만든 방식대로 섬기는 대상입니다.

옛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백성의 모형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언약의 땅을 주시려고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던 백성을 어린양의 피로써 속량하여 내셨건만, 그 백성은 언약의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삶을 받고 종교의 일을 하는 자의 감언에 속아 다시 세상 나라로 예속하여서 전과 같이 허덕이고 신음하다 죽는 길로 다시 들어선 것입니다.



가라사대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ㄹ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하느님의 평화는 발람이 말하는 화해와 평화와는 반대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말세에 미혹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당신의 교회에 경고하시어 가라사대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ㄴ 하셨습니다.

ㄱ.민25:4   ㄴ.민25:8   ㄷ.민25:9   ㄹ.민25:11~13   ㄴ.계2:14~15

발람의 교훈이 선지자들의 시대에서는 바알 선지자의 무리가 되어 그 백성을 지도했던 교훈이었고 예수의 재세 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으며 사도들의 시대를 넘길 무렵에는 이미 그리스도 교회 안에 번지고 있었던 니콜라 당의 교훈입니다.

니콜라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듯, 사도들의 교회가 박해를 받던 때 그리스도의 도가 이방에 전파되었고 그곳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풍속과 학문 속에서 자라난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와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한 교훈과는 ㄱ 색다른 이설을 주장하여서 동조자들을 가졌던 것이고 그 무리를 니콜라 당이라고 하였 습니다.

그들의 논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로마의 권력과 타협하지는 주장이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교회가 그의 임금께 지켜야 할 정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ㄴ 음녀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전통적 학술 인의 견지에서 옛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사상으로 예수를 재해석하고 그 예수의 신성(神性)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신자인 척 하였으나 실상은 교회의 다른 신자들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회개 를 통하여 신자가 된 자가 아닙니다 ㄷ.

그들은 하느님의 품성과 인간의 품성을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으로 양분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육신이 신성한 몸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성부와 동일한 몸이라고 하는 철학적 논설을 펼쳤 습니다. 동일체라고 하여야 유일신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영(신)이신 하느님께서 육신을 생산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ㄹ 탄생하신 하느님의 독생 자를 거꾸로 영적 존재로 되돌려서 성서에서 가장 골수가 되는 하느님의 생산을 부정하는 ㄴ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이설을 지어낸 것은 그리스도와 그들의 황제가 서로 상충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ㄱ.요1서2:24~26   ㄴ.요1서2:15~16   ㄷ.요1서2:19   ㄹ.요1:14   히2:14~15   요1서 4:2   요2서7   ㄴ.요1서2:22~23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임금입니다. 예수께서 임금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ㄱ 세상에 오 신 목적도 그 임금입니다 ㄴ.

그들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ㄷ 많은 백성이 고대하던 그리스도 곧, 하느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시어서 육체로 임하신 임금이라는 것을 부인하여서 ㄹ 로마황제의 영역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들의 논설은 그들의 황제와 같이 육신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의 왕국은 육신 이 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나라라는 논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일체(一體)일 수 있으리까.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금)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 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敵)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ㄴ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이시오. 이스라엘 혈족의 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요 그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단 한 분뿐인 그리스도자께서 명하시고 사도들이 전한바, 그 한 교훈만을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영을 생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왕은 천사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이 아니오.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인 동정녀에 임하시어 그 동정녀께서 출산하신 육신이십니다.

하느님의 영과 인간의 육신이 하나로 결합하여서 탄생하신 하느님의 독생자이시어서 하느님의 아들도 되고 사람의 아들도 되는 전대미문의 종자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ㄱ.마2:2, 21:5, 27:11 요1:49, 18:37 ㄴ.요18:37 ㄷ.요4:25 ㄹ.요1서4:2 요2서7 ㅁ.요1서2:22~24 ㅂ.사9:7 단2:44, 7:14 ㅅ.단7:18 마21:43 ㅇ.마23:10 ㅈ.요 4:24 ㅊ.마1:18~25 ㅋ.마12:40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의 독생자를 생산하셨은즉 육신으로 탄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에게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이 곧 그의 육신이십니다.

사람은 영과 육신이 하나가 아니어서 임종할 때 영혼을 하느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말하고 시신을 남깁니다. 그러나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었을 때는 하느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시신을 남기시고 영혼이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이 무덤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 육신이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에 다시 다시 오시겠다는 기약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본 대로 그 육신이 승천하셨고 그 육신이 재림하시어 천하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실 큰 임금이시오.

이것이 사도가 처음부터 전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은 이 육신을 믿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생산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임하신 임금을 부인하고 성서와는 거꾸로 성자의 영이 하느님과 동일한 몸이라고 하는 니콜라 당의 교훈이 교회를 미혹하였기, 그리스도는 단지 기도할 때만 입술로 부르는 영적 임금으로 왜곡되었고 육신의 행실(열매)로 지켜야 할 예수의 교훈이 온통 영적 의미라는 말로 가공되어서 말이 다르고 실제 행실이 다른 외식의 종교로 변질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으신 유일하신 인생의 주(임금)이시오.

이를 믿고 예수를 자신의 유일한 왕으로 모셔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예수의 왕권은 하늘만의 권세가 아닙니다.

ㄱ.요1서5:8 ㄴ.마27:46 ㄷ.마12:40 ㄹ.요20:27 요1서1:1 ㅁ.행1:11 ㅂ.계 19:15 ㅅ.마5:35 ㅇ.요20:27~28 ㅈ.요 17:2

그 권세는 하늘과 땅, 모두에 대한 권세입니다. 하늘에만 수천 만만 천사들이 경배하는 임금이 아니라 천상이든 천하든 그 가운데 만물이 복종하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원군(元君)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예수께서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나 그가 다시 오시는 때에는, 땅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만왕(萬王)과 함께 하시고 하느님의 어린양은 그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속하였다든 말은 예속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 독립하여 세운 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이고, 사람이 죽어서 가는 사후의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 오는 세상이요 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하셨고 제자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대로<sup>ㄱ</sup>, 이해가 지나면 명년이 오듯이 다가오고 있는 언약의 나라입니다.

성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나라를 언약하신 글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느님께 속한 권세가 아니라 마귀에 예속한<sup>ㄴ</sup> 권세입니다. 인간 자체가 이미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로마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두 나라가 이 세상에 함께 있어서 이 군대와 저 군대가 서로 싸웠겠으나<sup>ㄷ</sup>,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때가 이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개벽 되는<sup>ㄹ</sup> 것입니다.

ㄱ. 마28:18 ㄴ. 계5:11~12 ㄷ. 계5:13~14 ㄹ. 계1:5 ㅁ. 마22:44, 26:64 ㅂ. 계5:10 ㅅ. 눅22:30 계2:26 ㅇ. 계17:14, 19:16 ㅈ. 요일4:3 ㅊ. 요18:36 ㅋ. 마12:32 눅16:8 ㅅ. 마10:7 ㅆ. 마4:8~9 눅4:5~6 계13:2 ㅎ. 요18:36 ㅈ. 마19:28 계11:15

때가 코앞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재난이<sup>ㄱ</sup>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강림하시어<sup>ㄴ</sup> 입의 기운으로 만국을 치시고 친히 만민을 다스리시는 새 세상이<sup>ㄷ</sup> 펼쳐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요한만이 남아서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때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서방으로만 전파되어서 로마에 신자들이 있으려면 천자께서 유독 아시아에 남아 있던 교회들만을 당신의 교회로 계시하시면서 교회에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께서 밤이 온다고 하셨듯이 이 적 그리스도의 교훈이 가득 퍼져서 교회가 세상을 밝혀야 할 빛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인생에 임하여야 할 천국이 거꾸로 세상을 떠나 영혼이 가는 나라로 오인되어 있거나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가르쳐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천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느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sup>ㄴ</sup>.

하느님의 신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그 거룩하신 신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보이는 것만을 좇는<sup>ㅂ</sup> 바리새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sup>ㄷ</sup>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신께서 인생에 강림하심으로써<sup>ㅇ</sup> 인생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나의 안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그냥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일<sup>ㄹ</sup> 뿐입니다.

성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sup>ㅈ</sup> 자입니다. 사람 자체가 그 나라의 왕을 모시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sup>ㅋ</sup> 그 나라의 백성이<sup>ㅅ</sup> 되어야 비로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세상을<sup>ㅆ</sup> 맞을 수 있습니다.

ㄱ. 마24:21 ㄴ. 마16:27 계19:11~16 ㄷ. 마19:28 ㄹ. 계2:6 ㅁ. 눅17:20 ㅂ. 요7:24 8:25 ㅅ. 눅17:21 ㅇ. 율2:28 요7:39 ㅈ. 요15:9 ㅊ. 마6:33 ㅋ. 마24:45 계19:11 ㅅ. 계18:4, 21:3 ㅆ. 마19:28, 26:29 계21:5

오순절(五旬節)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sup>ㄱ</sup> 성령이시나 내가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sup>ㄴ</sup> 그 나라와 내가 무슨 상관<sup>ㄹ</sup>이오.



예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이시오. 이스라엘 혈족의 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요 그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단 한 분뿐인 그리스도자께서 명하시고 사도들이 전한바, 그 한 교훈만을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영을 생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왕은 천사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이 아니오.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인 동정녀에 임하시어 그 동정녀께서 출산하신 육신이십니다.

하느님의 영과 인간의 육신이 하나로 결합하여서 탄생하신 하느님의 독생자이시어서 하느님의 아들도 되고 사람의 아들도 되는 전대미문의 종자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ㄱ.마2:2, 21:5, 27:11 요1:49, 18:37 ㄴ.요18:37 ㄷ.요4:25 ㄹ.요1서4:2 요2서7 ㅁ.요1서2:22~24 ㅂ.사9:7 단2:44, 7:14 ㅅ.단7:18 마21:43 ㅇ.마23:10 ㅈ.요 4:24 ㅊ.마1:18~25 ㅋ.마12:40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의 독생자를 생산하셨은즉 육신으로 탄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에게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이 곧 그의 육신이십니다.

사람은 영과 육신이 하나가 아니어서 임종할 때 영혼을 하느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말하고 시신을 남깁니다. 그러나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었을 때는 하느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시신을 남기시고 영혼이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이 무덤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 육신이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에 다시 다시 오시겠다는 기약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본 대로 그 육신이 승천하셨고 그 육신이 재림하시어 천하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실 큰 임금이시오.

이것이 사도가 처음부터 전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은 이 육신을 믿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생산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임하신 임금을 부인하고 성서와는 거꾸로 성자의 영이 하느님과 동일한 몸이라고 하는 니콜라 당의 교훈이 교회를 미혹하였기, 그리스도는 단지 기도할 때만 입술로 부르는 영적 임금으로 왜곡되었고 육신의 행실(열매)로 지켜야 할 예수의 교훈이 온통 영적 의미라는 말로 가공되어서 말이 다르고 실제 행실이 다른 외식의 종교로 변질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으신 유일하신 인생의 주(임금)이시오.

이를 믿고 예수를 자신의 유일한 왕으로 모셔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예수의 왕권은 하늘만의 권세가 아닙니다.

ㄱ.요1서5:8 ㄴ.마27:46 ㄷ.마12:40 ㄹ.요20:27 요1서1:1 ㅁ.행1:11 ㅂ.계 19:15 ㅅ.마5:35 ㅇ.요20:27~28 ㅈ.요 17:2

그 권세는 하늘과 땅, 모두에 대한 권세입니다. 하늘에만 수천 만만 천사들이 경배하는 임금이 아니라 천상이든 천하든 그 가운데 만물이 복종하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원군(元君)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예수께서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나 그가 다시 오시는 때에는, 땅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만왕(萬王)과 함께 하시고 하느님의 어린양은 그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속하였다는 말은 예속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 독립하여 세운 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은 지금 세상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사후의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 오는 세상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하셨고 제자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대로, 이해가 지나면 명년이 오듯이 다가오고 있는 언약의 나라입니다.

성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나라를 언약하신 글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느님께 속한 권세가 아니라 마귀에 예속한 권세입니다. 인간 자체가 이미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로마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두 나라가 이 세상에 함께 있어서 이 군대와 저 군대가 서로 싸웠겠으나,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때가 이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개벽 되는 것입니다.

ㄱ.마28:18 ㄴ.계5:11~12 ㄷ.계5:13~14 ㄹ.계1:5 ㅁ.마22:44, 26:64 ㅂ.계5:10 ㅅ.눅22:30 계2:26 ㅇ.계17:14, 19:16 ㅈ.요일4:3 ㅊ.요일8:36 ㅋ.마12:32 눅16:8 ㅌ.마10:7 ㅍ.마4:8~9 눅4:5~6 계13:2 ㅎ.요일8:36 ㅊ.마19:28 계11:15

때가 코앞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재난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강림하시어 이 땅의 기운으로 만국을 치시고 친히 만민을 다스리시는 새 세상이 펼쳐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요한만이 남아서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때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서방으로만 전파되어서 로마에 신자들이 있으려면 천자께서 유독 아시아에 남아 있던 교회들만을 당신의 교회로 계시하시면서 교회에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께서 밤이 온다고 하셨듯이 이 적 그리스도의 교훈이 가득 퍼져서 교회가 세상을 밝혀야 할 빛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인생에 임하여야 할 천국이 거꾸로 세상을 떠나 영혼이 가는 나라로 오인되어 있거나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가르쳐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천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느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신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거룩하신 신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보이는 것만을 좇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신께서 인생에 강림하심으로 인생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나의 안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그냥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일 뿐입니다.

성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사람 자체가 그 나라의 왕을 모시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비로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세상을 맞을 수 있습니다.

ㄱ.마24:21 ㄴ.마16:27 계19:11~16 ㄷ.마19:28 ㄹ.계2:6 ㅁ.눅17:20 ㅂ.요일7:24 8:25 ㅅ.눅17:21 ㅇ.욥2:28 요7:39 ㅈ.요일5:9 ㅊ.마6:33 ㅋ.마24:45 계19:11 ㅌ.계18:4, 21:3 ㅍ.마19:28, 26:29 계21:5

오순절(五旬節)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시나 내가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나라와 내가 무슨 상관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면 예수께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언약은 무엇이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입술만 실룩거리며 내는 형식적인 소리로 하지 않고 진심을 들어서 기도하였더라면 누구든 그 나라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영혼의 나라도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때를 물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달리 때가 이른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오시는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때에 목숨을 사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 백성의 목숨을 보전케 하시기 위하여 데려가시는 곳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목숨이라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오. 재앙의 때,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작은 자와 큰 자가 있습니다. 믿는 이가 더욱 많은 열매를 맺도록 천부께 항상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하여서 받는 것이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義)만 구하면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아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안이 천국이오. 하늘의 영역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 크게 임하옵기를 기도하고 마음속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ㄱ. 행2:1~4   ㄴ. 롬8:9   ㄷ. 눅12:31   ㄹ. 마6:9~10   ㅁ. 눅17:21   ㅂ. 눅17:22   ㅅ. 눅 17:33   ㅇ. 눅17:37   ㅈ. 마24:22   ㅊ. 마 5:19   ㅋ. 마7:7   ㉠. 요16:24   ㉡. 눅11:13   ㉢. 마6:33   ㉣. 마6:10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때와 곳을 초월한 하늘의 영적 ㄱ 의미를 알게 됩니다.

상제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ㄷ 말씀도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지,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오.

그와 같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신 ㄹ 말씀도 어린양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장래 나 타날 ㅁ 이 세상 임금에게 이미 멸망의 숙명이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인생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느님께서 다 이루시는 ㅂ 것입니다.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시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여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임금이시라고 답하였 던 ㅅ 시몬에게 상제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ㅇ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합심하는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는 ㅈ 땅에 있으면서도 그의 속 은 천국이 임하여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ㅋ.

주를 부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를 따르지 못했던 ㉡ 시몬이 성령을 받고는 그의 주를 실제로 따라 ㅈ 십자가에 두 팔을 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도할 때만 주이신 영적 임금이 아닙니다. 인생에 주신 말씀을 세상에서 실제 행동으로 따라야 하는 하나뿐인 ㅎ 임금입니다.

그리스도와 시몬이 서로 상대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 세상에 주시어, 세상 죄를 지시려고 2 오셨던 하느님의 독생자이십니다.

ㄱ.계11:8 ㄴ.요18:37 ㄷ.요19:30 ㄹ.요16:11 ㅁ.요14:30 ㅂ.계21:6 ㅅ.마 16:16 ㅇ.마16:19 ㅈ.마18:18~20  
 ㅊ.행1:8 ㅋ.마11:12 ㄹ.요20:22~23 ㅍ.마26:75 ㅎ.마16:22~26 ㅎ.마5:35, 21:5, 23:10 ㅌ.요3:16 ㅍ.요1:29

하느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3 하신바, 구세주(救世主)이십니다.

멸망하는 것은 어린양을 믿지 않고 그의 적이 되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의 종들을 처형하는 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4.

세상이 정죄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래 세상의 권세를 권 5 붉은 용과 일곱 머리를 가진 붉은 짐승과 6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7 정죄를 받아 멸망함으로써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권세라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권세가 아니라 거짓으로 8 사람을 속여서 쟁취하는 권세이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아니라 살인하는 무력의 권세이며 9 하느님께서 지으신 천지를 더럽히고 파괴하여서 저주를 불러들이는 10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무너짐으로써, 그 권세에 짓밟혀서 인생이 울고 11 만물이 탄식하던 12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세상 나라에 오셔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언하신 자체가 세상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3.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는』 14 나라가 이르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만인이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시어 탄생하셨고 그 육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그와 같이 각인의 눈이 볼 수 있는 육체로 15 다시 세상에 오셔서 친히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로 세상이 새롭게 16 바뀌는 것입니다.

ㄱ.요3:17 ㄴ.사60:12 단2:44 요16:11 계16:19, 18:3, 19:15 ㄷ.눅4:5~6 계13:4, 20:2~3 ㄹ.요12:31, 48, 16:11 계13:7~8 ㅁ.계17:18, 19:2 ㅂ.창3:1~5 요8:44 ㅅ.마26:47~55 요19:1~3, 23 계13:10 ㅇ.창3:17, 4:11 ㅈ.계7:17, 21:4 ㅊ.롬 8:22 ㅋ.마24:21~22 ㄹ.계11:15 ㅍ.행1:11, 계1:7 ㅎ.마19:28, 26:29 계21:5

상제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셨으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또 다시 승천하시려고 다니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기독교의 설은 성서에 없는 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진리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는 하늘에 속한 뜻이 하느님의 첫째 날에 빛으로 탄생하시어 그 뜻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어졌고 17 천지와 만물이 다 지어진 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8 이 세상에 탄생하시어서 사망을 이기셨기 비로소 인생에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육신으로 임하실 임금을 놓고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신의 성삼위가 서로 다르지 않은 일체(一體)라고 정의하여서 성자의 몸이 곧 성부와 성신의 몸이라는 신조를 지어서 교리를 삼았기 교회가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임금을 섬기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위하여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예수께서 종교를 세우셔서 그 종교의 교주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저들은 육신으로 오신 임금을 영적 존재로 변형시켜서 상징적인 왕으로 만들었기, 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실제로 좇지 않고 영적인 뜻이라며 갖가지 신학적인 해설을 붙여 왜곡하고 성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사와 절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천국과 속세가 분리된 막을 찢으시고 ㄷ 하늘의 거룩하신 영이 땅에서 사는 육체에 임하시어 하나가 이루어지도록 목적하신 것이 복음이거늘, 그와 반대로 신성과 인성을 분리한 교훈이어서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ㄴ.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뿐입니다 ㄹ.

ㄱ. 요1:2 고전8:6 ㄴ. 요1:14 요1서1:1 ㄷ. 눅23:45 ㄹ. 요이1:7 ㅁ. 마23:10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입니다. 순교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주는 형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그들 나라는 자기 나라의 권력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그 권세를 두려워하면 순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관원(官員)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라고 ㄴ 하여서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그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관원에게 끌려가 처형되어서 어린양을 따르는 길이 이 세상의 권세와 상충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바울과는 달리, 우리의 임금께서 친히 가라사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ㄷ 가르쳐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온통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느 ㄹ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신 주를 따르지 못하고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는 담대히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당이 동자(童子)의 혼령이 실렸다고 동자의 행동을 하듯 그리스도의 영이 실리면 마음에서 우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합니다.

천사께서 당신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ㄹ 지는 자들에게 당신의 친구라는 ㅂ 동격의 호칭을 쓰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주께서 언약하신 날이 이르면 부활하신 주와 같은 형체가 되어 ㅅ 천부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ㅇ 아들들로서 어린양과 더불어 ㅈ 땅에서 왕 노릇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니 사랑이니 하는 어린양의 말씀이 모두 마음의 법이요.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골백번 설득하여도 마음에 믿어져야 믿음이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ㄱ. 롬13:3 ㄷ. 눅12:4 요16:33 ㄹ. 신1:29, 3:22, 7:21, 20:3 사10:24, 35:4, 41:10~14, 44:2, 8, 51:7 ㅁ. 마10:38, 16:24 ㅂ. 요15:13~14 ㅅ. 눅6:40 고후3:18 빌3:21 요1서3:2 ㅇ. 요16:27 ㅈ. 계3:21, 20:4, 6

오직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어 마음이 하느님의 어린양과 하나가 되는 것이 ㄱ 관건입니다.

속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지키는 것은 외식이 됩니다.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계명을 성령으로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ㄴ.

동녘에 해가 솟기 전 꼭두새벽에 하느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진리의 신이 임하시어서 ㄷ,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ㄹ. 어린양의 영을 받은 어린양의 여자입니다 ㄹ.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반대로 하느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언 때문에 핍박을 받는 ㅂ 여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서방에 전도하였던 바울이 이르기를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ㅅ 예언하였듯이 그때가 된 것이어서 오시는 상제에 앞서 진리를 햇빛같이 밝히는 촛대가 ㅇ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어린양의 종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가오는 새 세상을 예언하기에 현존하는 문명과 충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 온 세상에 다시 하는 증언으로 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쥔 기존의 붉은 짐승과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진리를 밝히는 해를 입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이요.

일찍이 하느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탓에 목 베임을 당하였던 자들과 같은 길을 걷는 동무가<sup>ㄱ</sup> 말일에 주의 일을 하는 증인들입니다.

하느님을 떠나 인간의 성(城)을 쌓고 사는 가인이 가진 표가<sup>ㄴ</sup> 짐승의 표입니다. 옛 뱀을 들짐승이라고 하였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을 가진 것도 짐승이고 새끼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것도 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짐승이 각 사람에게 찍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여서<sup>ㄷ</sup> 그리스도의 종들은 짐승의 대적이 됩니다.

ㄱ. 요17:11, 21~22 요1서1:3, 3:24, 5:20 ㄴ. 마5:17 롬13:8 히7:11, 10:1 ㄷ. 요엘 2:28 ㄹ. 계12:1 ㅁ. 마25:10 계21:9 ㅂ. 계12:13 ㅅ. 고전13:12 베후1:19 ㅇ. 슥 4:14 계11:4 ㅈ. 눅12:51 ㅊ. 사54:7~8 단12:7 계6:9~11 ㅋ. 창4:15 ㅌ. 계20:4

예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을 위하여서라면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버리고<sup>ㄱ</sup>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는 것이요<sup>ㄴ</sup>.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니 당당하게 이르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자는 목숨을 얻습니다<sup>ㄷ</sup>.

목숨은 영혼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입니다. 부활 중에는 첫째 부활이<sup>ㄹ</sup>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으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sup>ㅁ</sup>. 부활하신 그들의 주와 같은 형상을 입어서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의 포도를 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sup>ㅂ</sup>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신 제 칠 일은 여섯째 날의 어둠을 이기신 하느님의 어린양이시요<sup>ㅅ</sup>.

첫째 부활은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어린양의 신부가 신랑의 계명을 지켜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여섯째 날의 그 여섯 수로 이루어진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를<sup>ㅇ</sup> 이기고 벗어나는<sup>ㅈ</sup> 것입니다.

더는 여섯째 날에 지어진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한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sup>ㅊ</sup> 부활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더는 만들어진 하느님의 모조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생산하신 아들들입니다<sup>ㅋ</sup>.

니콜라당을 가리켜 상제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던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셨듯이<sup>ㅌ</sup>, 또다시 상제께서 가라사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行淫)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sup>ㅍ</sup> 교회에 경고하셨습니다.

ㄱ. 마19:29 ㄴ. 눅14:26 ㄷ. 마10:39, 16:25 ㄹ. 계20:5 ㅁ. 계20:6 ㅂ. 마26:29 ㅅ. 마2:8 ㅇ. 계13:18 ㅈ. 계15:2 ㅊ. 요3:5 ㅋ. 눅16:8 롬8:19 ㅌ. 계2:14 ㅍ. 계2:20



아합이라고 이름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내로 말미암아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여 섬겼습니다 ㄱ.

옛바알이 자신의 주로 섬기는 바알을 아합과 이세벨이 섬긴 것이고 이 예배를 이스라엘의 선지자 대다수가 용납하였기 ㄴ 동조하지 않았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ㄴ.

이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려고 모압 평지에 진 쳤을 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섬기던 대상이었으며 ㄹ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 왕 바로가 섬기던 대상이었습니다.

바알이 히브리어로 어느 특정한 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主)라는 뜻을 가진 보통명사이듯 그곳 족속들이 자기네가 섬기는 하늘의 주를 그렇게 부른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하느님으로 인식하여서 계속 그 족속들과 합류한 것입니다.

물론, 같은 주입니다 ㄹ. 예수께서 당신을 태양에 비유하셨듯이 ㅂ 인생이 사모하고 섬겨야 할 유일하신 세상의 빛이시오 ㅂ 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신앙과 합류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니, 그 주가 다름 아닌 유대인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신앙을 용납하면 그 이방인이 바알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나라의 임금도 아울러 용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자가 ㄹ 음녀(淫女)입니다.  
주께서 교회에 경고하신 음행은 남녀의 육신적 음행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라고 표방하면서 당신과의 언약을 떠나 이 세상의 권세에 붙어서 자신의 목숨을 도모하는 자칭 선지자들의 행위입니다.

ㄱ. 왕상16:30~33 ㄴ. 왕상18:19~22 ㄴ. 왕상18:4, 19:10 ㄹ. 민22:41, 25:3 ㄹ. 요4:20 ㅂ. 요9:4~5, 11:9~10 ㅂ. 요8:12 ㅂ. 약4:4 요1서2:15

우상의 제물은 옛 그리스와 로마에서 우상이 있는 신전에 봉헌하였던 제물이오. 그 의식이 교회로 퍼져서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고 또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타락하는 것을 주께서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말세는 핍박을 받아 순교하였던 자들의 그 신령하고 진실한 교회는 사라지고 반대로 핍박하여 죽이는 자들이 두 뿔을 가진 새끼 양의 털을 쓰고 노략질을 하면서 ㄱ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ㄴ 온 세상을 열 뿔 가진 짐승에게 인도하는 ㄴ 세력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여러 종교 중에서 자기들같이 신자 위에 군림하는 종교지도자들을 규합하여 종교적 단합을 꾀하여서 세계만민이 칠두십각(七頭十角)의 짐승을 따르도록 ㄹ 앞장서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권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온 세상의 강대국들이 한 체제로 결탁한 세계 정권이 ㄹ 실현되어서 이를 가리켜 열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정치 권력과 짝을 이루는 음녀는 인간의 나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신으로 섬기던 옛 그리스의 제전을 이어 받아 행사를 거행하는 것이어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인류의 통일을 성취하였다는 기념으로 멸망의 가증한 우상을 조형하고 만민으로 하여금 이를 신성하게 여기게 하려고 그 우상 앞에 점화하는 횃불이 하늘에서 내려 오게 하여서 ㅂ 온 세상에 초능력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옛 이집트의 술객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듯이 그 우상에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는 표적을 일으켜서 온 인류로 하여금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선전하고 그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처형을 받도록 참조하기에서 이릅니다.

이것이 음녀가 세상에서 최후로 수행할 그의 사명입니다.

ㄱ.마7:15 ㄴ.계17:2, 18:3 ㄷ.계13:14~15 ㄹ.계13:11~14 ㅁ.계17:12~13 ㅂ.계13:13 ㅅ.계13:15

모세가 행한 이적을 애굽 술객이 뒤따라 행하였듯이 ㄱ 그들이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멸망의 가증한 우상이 ㄴ 세워지기 전에 어린양의 일꾼들이 일어나 세상을 책망하며 ㄷ 다가오는 왕국을 예언하고 ㄹ 주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어서 ㅁ 성령의 표적들이 나타나 ㅂ 각 민족과 나라 중에서 헬 수 없이 많은 자가 회개하고 ㅅ 또 전란과 흉년과 전염병이 횡행하여 ㅈ 민심이 심히 동요하므로, 이 종교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신이 함께한다는 표적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녀가 이같이 활동하는 때는 알곡은 어린양의 종들로 말미암아 이미 모이고 ㅊ 쭉정이가 남는 때입니다. 말세는 큰 환난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은 사람이 임종하고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때를 놓치면 문이 닫히고 ㅋ 마는 육신의 ㅌ 구원이요, 주의 말씀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ㅍ 하셨습니다.

일러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는 잠깐의 기간이 도망하는 때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ㅎ 하신 말씀도 같습니다. 어린양의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ㅊ 도망하는 때와 곳이 있어서 이르게 도망하여도 죽고 늦어도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인간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여 이룩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ㅊ 세워져서 하느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ㅋ 주시는 것이어서 받는 자는 운명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ㅋ 하셨듯이 전쟁으로 세워져서 무력으로 지탱하는 나라와는 다릅니다.

ㄱ.출7:11 ㄴ.마24:15 ㄷ.요16:8 고전6:2 히11:7 ㄹ.계10:11 ㅁ.계11:3 ㅂ.계11:6 ㅅ.계7:2~3, 14, 10:11 ㅅ.속6:1~8 계6:1~8 ㅈ.마3:12 눅3:17 ㅋ.마25:10 눅13:25 ㅌ.마24:22 ㅍ.마24:20~21 ㅎ.마24:28 눅17:37 ㅊ.계12:14 ㅊ.단2:44 ~45, 8:27 ㅋ.마5:5 ㅋ.계13:9~10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ㄱ 그 결과 이 세상이 그 이긴 자에게 종속되어,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는 ㄴ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 반대로 세상이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막론한 성서의 예언이고 이 세상의 숙명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신능(神能)의 조화로 되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ㄷ. 계시에서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느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ㄹ 하셨듯이 땅에서 구속(救贖)되어 ㅁ 초자연의 몸을 입게 되는 ㅂ 그 왕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됩니다.



불과 한 세기 전까지도 동방에서는 임금을 나라로 여겼습니다.

임금이 나라의 권세를 가졌기에 국민도, 국토도 임금에 속한 임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온 왕국입니다. 만왕(萬王)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오 당신을 따르는 만왕과 함께 친히 만국의 정사를 잡으시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아버지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것임이시어서 그 나라의 백성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땅도 아버지의 유업으로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ㄱ. 요16:33 요일5:4, 5 계2:17, 21:7 ㄴ. 계5:10 ㄷ. 마21:43 ㄹ. 계5:9~10 ㅁ. 계14:3 ㅂ. 요일2:25,3:2 ㅅ. 딤펢전6:15 계1:15, 17:14, 19:16 ㅇ. 계21:2~5 ㅈ. 사9:6 단7:22 계2:26, 11:17, 12:5, 19:15, 21:3, 21:24, 22:3 ㅊ. 계11:15 ㅋ. 요18:36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밑에 놓이는 ㄱ 시대가 오는 것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가까웠음을 증언하라고 명하시고 ㄴ 당신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국의 정사를 잡으시기 ㄷ 위하여 사람의 육안이 볼 수 있는 ㄹ 육체로 ㅁ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합니다 ㅂ.

뱀이 허물 벗듯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자기를 미워하여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회개를 항상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닙니다 ㅅ. 회개하면 자신이 과거에 예속하였던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갖지만, 어린양께서는 말씀의 토씨 하나까지 맹목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가 지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양을 믿는 자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천주(天主) 주의자입니다.

인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쪽을 위하여 투쟁하는 종자가 되지 못하면 조그마한 재앙이 미쳐도 회개하고 말 것이니 ㅇ 사탄은 그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쪽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반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ㅈ 기도하는 자가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권리를 부르짖으며 인간 자신의 영광을 목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모든 자연의 주인이 하느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느님을 사랑하여 ㅋ 자신이라고는 남김 없이 바쳐서 섬겨야 할 오직 뿐인 대상이 하느님이십니다.

ㄱ. 고전15:27 엡1:22 골1:18 히2:8 ㄴ. 마10:7 ㄷ. 사9:6 ㄹ. 마24:30 행1:11 계1:7 ㅁ. 마26:29 눅24:39 요이1:7 ㅂ. 마10:16 ㅅ. 요15:19 ㅇ. 계9:20, 16:11 ㅈ. 마12:26 ㅊ. 마6:13 ㅋ. 마22:37 막12:30